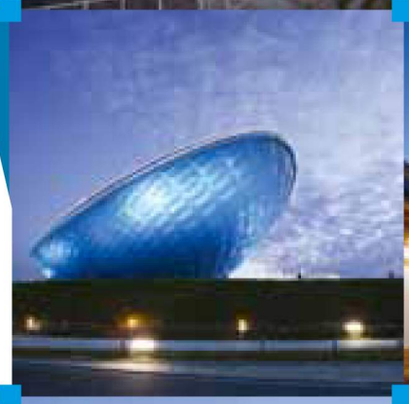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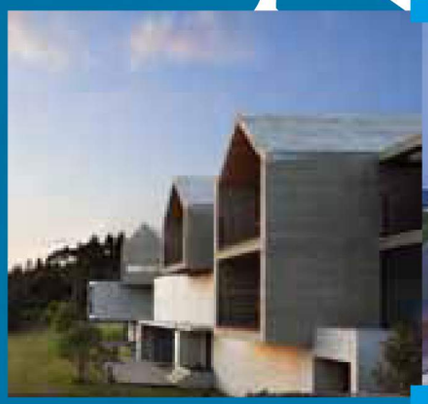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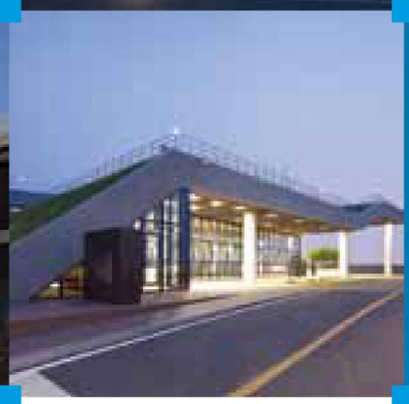
건축사 547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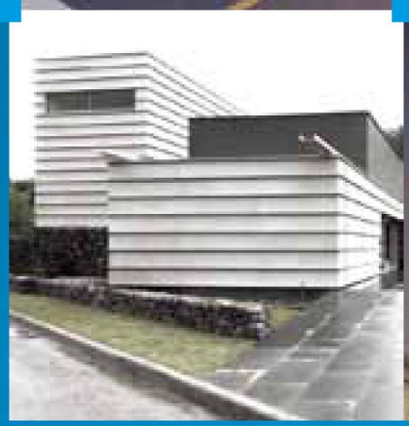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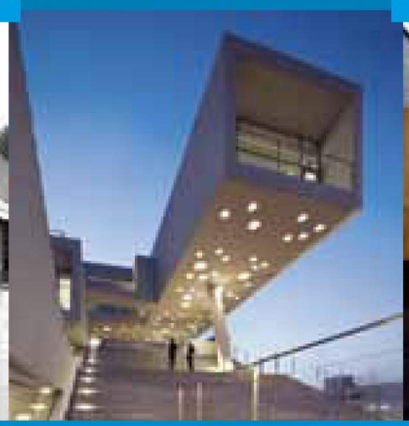
2014 11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질투
파국의 시간에서 다음 순간에 대해 말하기

특 집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S

건축사 2014 November KOREAN ARCHITECTS 547

글. 송준환_ Song, Jun-hwan
동경대학 특임연구원

지역시민과 대학생 참여프로세스에 의한 역주변정비사업의 실현

– 효고현(兵庫県) 히메지시(姫路市) 히메지역앞광장 –

Station Area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Citizen and University Student Participation
- Himeji Station Square, Himeji, Hyogo -

히메지시(姫路市)는 효고현(兵庫県)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약 53만명의 중핵도시이다. 특히, 히메지역에서 정북쪽으로 약 800m에 위치한 히메지성(姫路城)은 199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연간 80만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히메지역앞광장이 사람 중심의 개성적인 광장으로 변모하였다.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된 히메지역 주변을 일체화하기 위해 2008년 효고현 주도 아래 철도고가화(高架化)를 완료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계획안 변경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부터 북측역앞광장 정비가 시작되어 2년 만에 오픈하였다. 일본 내에서도 히메지역을 역사(驛舍) 및 역앞광장 정비의 성공사례로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와 주변 지역자원을 고려한 건축 및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에서 바라본 지상부 잔디광장 전경

■ 지역시민과 대학생 참여에 의한 "계획안의 공공성" 확립

히메지역앞광장은 과거 택시 승하차장 등 자동차 중심의 이미지가 강하였으나, 지금은 보행 중심의 지상 잔디광장과 선큰광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지역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실제로 역을 이용하는 지역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2007년, 히메지시가 처음으로 공표한 광장계획안은 현재의 모습과 달리 보행광장과 자동차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고, 지상부의 택시로터리가 선큰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선큰광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차량 중심의 교통광장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에 히메지성에 인접하고 있는 히메지역앞광장이 히메지시의 현관문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역시민들의 강한 의견이 있었고, 히메지상공회의소, 상점가연합회, 시의회 등 복수의 시민 그룹들이 독자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에 제안하기에까지 이른다.

해결방안으로 시에서 채택한 방법은 2008~2009년에 실시된 건축계 대학생에 의한 워크숍[1]이었다. 시민들로부터의 거센 항의를 받은 시는 초기 해결책으로 공모

1) 이 워크숍은 통칭 샤렛트(Charrette)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샤렛트는 프랑스어로 짐마차라는 뜻이다. 에코르데보자르 프랑스 미술학교의 건축스튜디오의 마지막 발표날 작품을 마차에 실어 나르던 것을 빗댄 말로, 단기간에 집중하여 성과를 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샤렛트워크숍은 미국의 도시디자인과 마을만들기에서 많이 실시되는 형태로, 단일 건축사에 의한 건축완결의 시대에서 다양한 이해단체 및 전문가의 합의 형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뉴어바니즘 운동의 일환이다. 단기간에 행정가, 도시계획가, 교통계획가,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워크숍으로서, 메이지(明治)대학 코바야시 마사미(小林正美)교수에 의해서 일본에 도입되어 NPO법인 마을만들기 디자인서포트(http://www.meiji-architecture.com/)와 일본건축학회의 후원 하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전국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되고 있다.

역사홈(캐슬뷰)에서 바라본 히메지성(좌)과 역사홈 전경(우)

전 개최를 고려했고, 자문 의뢰를 받은 코바야시(小林) 교수는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 안이 채택될 시 더 큰 문제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시민들과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제3자로서의 제안자 역할을 담당할 약 2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지역주민과 1주일간 합숙을 통해 계획안을 도출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넓은 범위의 지역시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시 또한 이에 적극대응하기 시작하였다.[2] 행정과 지역관계자 등에 의한 '공개포럼'을 개최하였고, 인터넷 공개방송 등을 통해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의 계획안, 민간의 복수 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공개하였다. 이에 2009년, 최종적으로 시장의 판단하에 사람과 차량을 명확히 분리하는 현재의 배치계획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 주변 지역자원을 고려한 건축 및 광장디자인의 실현

철도의 고가화 이후, 기존의 JR구(舊)역앞 빌딩의 지하골조형태를 그대로 본떠 바닥판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활용한 선큰가든은 지상에서 약 5m정도 하부에 위치한다. 가로70m, 세로23m 약 1,700㎡의 개방적인 공간과 함께 우드데크의 무대와 다양한 레벨을 활용한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이 선큰광장은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설된 역앞빌딩과 기성시가지의 지하도를 유연하게 지하레벨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지상과도 3개소의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다.[3]

선큰광장의 전경(좌)과 지하공간을 활용한 바자회 모습(우)

특히, 신설되는 JR역앞 빌딩의 배치변경을 통해 히메지역사(驛舍) 홈에서 주요 지역자원인 히메지성의 조망이 가능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포토존이 형성되어 있다. 광장디자인에 있어서도 시는 코바야시 교수 등 5명의 전문가를 맴버로 하는 디자인 회의를 열어, 디자인의 통일성 등을 1년반에 걸쳐 검토하였다. 역앞광장의 기본계획[4]은 니켄(日建)설계가 실시하였고, 선큰가든인 캐슬가든[5]은 니켄(日建)설계 시빌이 맡았다. 향후, 버스터미널 등의 정비와 트렌짓 몰의 검토 등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완성은 2015년 4월을 예정하고 있다.

■ 정비된 퍼블릭 스페이스의 유효활용을 위한 에리어매니지먼트 활동의 전개

2013년 10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에리어매니지먼트 준비조직(ひとネットワークひめじ一般社団法人)[6]을 설립하였다. 완성된 선큰광장 및 지하도 연결공간 그리고 지상 잔디광장 데크공간의, 면적 약 130㎡를 유효활용하기 위해 시로부터 업무위탁의 형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지역 농산물 퍼블릭 마켓활동, 콘서트, 바자회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선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2) 히메지시는 역앞광장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행정, 교통사업자, 관계권리자, 시민단체 등에 의한 「히메지역 북측역앞광장 정비추진회의」를 2012년까지 약5년에 걸쳐 17회 개최하였다.

3) 日経BP, 日経コンストラクション, pp. 12~18 2014. 6. 23

4) 명칭 : 히메지역북측역앞광장 및 역앞가로개수사업(연결데크, 잔디광장 등), 발주자 : 히메지시, 설계자 : 니켄설계 등, 시공자 : 토비시마(飛島)건설 등, 설계기간 : 2006년 6월~2012년 3월, 공기 : 2012년 2월~2015년 3월(예정), 설계비 : 약 1억9천만엔, 공사비 : 약 37억2천만엔

5) 명칭 : 선큰광장 및 지하도연결통로 개선사업, 발주자 : 히메지시, 설계자 : 니켄설계시빌, 시공자 : 산요(山陽)건설 등, 설계기간 : 2010년 7월~2011년 3월, 공기 : 2011년 12월~2013년 9월, 설계비 : 약 1억8천만엔, 공사비 : 약 15억8천만엔

6) ひとネットワークひめじ一般社団法人HP: http://hitonethimeji.jp/

글. **이지현**_ Lee, Ji-hyun
·
HOK(Hellmuth, Obata and Kassbaum) in Hongkong

베이징 스카이라인의 이국적 오브제_ CCTV 사옥

Exotic objet in Beijing skyline, _ CCTV Headquar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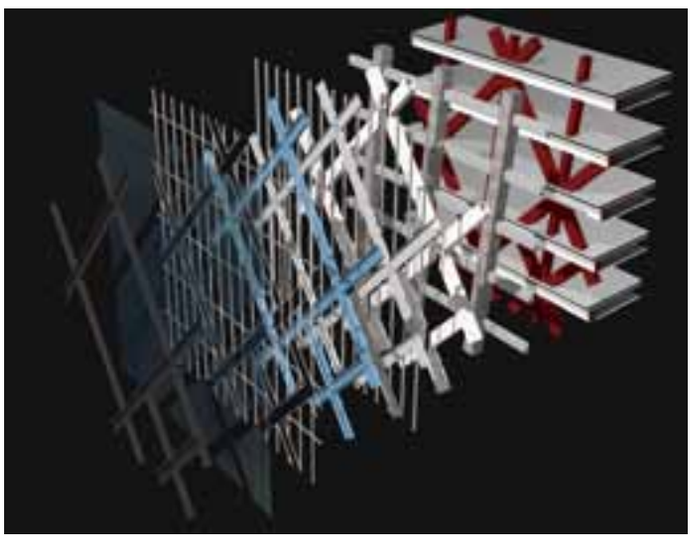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네델란드 건축사 렘 쿨하스(Rem Koolhaas), 그가 이끄는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가 설계한 중국 중앙 텔레비전의 새로운 본부(CCTV)다.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건물을 중국의 북경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문화적 배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마저 뒤로한 채 중국정부가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 도전적인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선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함이다.

역사적으로 고층빌딩(skyscraper)은 그 형태가 주는, 하늘로 솟으려는 듯한 상승감과 그 수직성으로 인한 공간적 위압감은 물론 때로는 경건함까지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렘 쿨하스는 처음부터 "너무나 반복된 고층빌딩은 오히려 고층빌딩의 의미 자체를 오염시켰고, 건물 높이에 따르는 매싱(massing)과 입면 디자인으로 다른 정체성(Identity)을 주려는 등의 노력은 진부함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기에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고층빌딩 디자인의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2012년에 북경에 완공된 CCTV는 삼차원적 루프 형상의 건물이 도시 안에서 이루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통해 그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CCTV를 올려다본 모습

CCTV 전경(©Iwan Baan)

CCTV의 건물은 삼차원적 입체의 루프를 형성하는 높이 234m의 고층빌딩으로, 기울어진 두 건물이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는 듯하다가 37층이 되는 높이에서 약 75m의 캔틸레버로 만나는 형태를 하고 있다. 건물의 주된 하중은 보통의 고층 건물처럼 중심의 코어를 통해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표면의 규칙적이지 않은 격자 구조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위치에 따른 다른 크기의 하중이 입면의 격자패턴 밀도로 나타난다.(예를 들어, 격자구조의 밀도가 높을수록 그 부분은 하중의 이동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CCTV 파사드 다이어그램

수직이 아닌 대각선 격자가 선택된 이유는, 첫째; 하중과 관련하여 수직적인 힘의 전달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지진으로 인한 횡력에도 충분한 견고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위해, 둘째; 수평/수직선이 층수와 높이를 표현하는 데에 반하여 대각선은 층수를 가늠할 수 없고 패턴의 밀도만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이 '오브제'가 가지는 모호성을 암시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렘 쿨하스의 미학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외관 구조는 북경의 스카이라인에 새롭고 미묘한 존재성을 제공한다. 특히 70% 개방 세라믹 프릿의 태양음영 고성능 유리패널을 사용하여, 다른 고층 건물들이 북경의 심한 공기오염으로 빠르게 더럽혀지는 반면 이 건물 고유의 회색은 마치 오래 전부터 북경에 속해있는 듯하다.

사실 이 건물은, 오브제로서 가지는 형태 자체의 위상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프로그램 지향적인 건물이다.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이 생산, 방송, 관리 등의 시설이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을 때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473,000㎡에 달하는 GFA의 CCTV 건물은 TV 스튜디오, 사무실, 방송 및 생산 설비 등의 프로그램들을 한데 모아 수용했다. 건물의 삼차원으로 완결된 루프 형태는 바로 이 미디어가 생산과정에서부터 방송까지 한 루프를 이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기도 한다. 타워1은 편집 영역과 사무실, 타워2는 뉴스 방송 관련, 그리고 연결 부분인 캔틸레버 쪽에는 관리 사무실과 공공 영역들이 분포되어 있다. 10,000㎡의 메인 로비는 타워1에 지하3층에서부터 지상3층까지 연장되는 놀랄만한 규모의 아트리움으로, 북경의 지하철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양의 많은 정부 관련 건물들이 그들의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를 표상하기 위해 건물의 투명성을 중시하고 많은 공간을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열어놓는 것처럼, CCTV 건물은 현재 중국정부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나 미디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공한다. 일상적인 스튜디오 작업을 대중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CCTV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 전시공간을 만들었으며, 37층의 캔틸레버 부분에 올라서면 북경의 중앙경제지구(CBD-Beijing Central Business District)와 함께 베이징의 전체 조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 건물이 고층빌딩 역사에 한 점을 찍을 만한 구조적 도전이었던 만큼 유럽과 중국의 구조 기술자들과 건축사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 37층부터 얹힌 건물의 볼륨은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두 건물이 하나로 병합되기 이전에는 개별 건물이 바람에 의한 횡력과 바깥의 온도 차이에 의한 구조체 자체의 수축력 등을 독립적으로 견뎌내야 했고, 게다가 이는 두 건물이 병합된 다음에의 구조 조건과는 다른 형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건축사들이 완결된 디자인을 구조기술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디자인과정에서부터 세계적인 구조기술자 세실 발몽드(Cecil Balmond)와 Arup이 OMA와 협력하여 거의 합일적으로 설계를 진행해 나갔다. 중국정부 또한 혁신적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고 지원했다.

건축사, 변화된 시작을 알리다!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국의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0월 23~24일 양일에 걸쳐 구미코(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등을 가졌다. 특히 24일 열린 기념식에는 전국에서 약 5,000여 명의 건축사가 참석해 '건축사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해 건축전문가단체로서 강도 높은 자정 노력과 최근 급변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변화하는 건축사의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행사이기도 했다. 내년 협회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행사여서 그 의미가 더 컸다.
24일 본 대회에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 등을 비롯해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장과 태국, 중국, 라오스 등 아시아의 여러 건축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건축이 구조·설비·인테리어를 아우르고,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 정책과 제도가 올바르게 제정·시행되도록 건축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가의 성패와 번영은 제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선포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건축비전선포식'에서는 김영수 회장과 이각표 대회 조직위원장, 임송용 대회집행위원장 및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첨성대쌓기' 퍼모먼스를 통해 안전한 건축물 설계를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구미코에서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함께 경상북도건축문화제와 건축홍보관 특별전시 등이 동시 개최돼 많은 관람객들이 찾기도 했다.

1

1. 행사 전경
2. 동시 행사로 열린 2014 경상북도건축문화제 개막 커팅식
3. 건축비전 선포식
4. 입장식 모습
5.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6. 구미코에 모인 전국 건축사 회원들
7. 선서 중인 건축사 회원들
8. 대회기를 흔들고 있는 김영수 회장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Culture'

2014 한국건축산업대전

국내 유일의 건축전문전시회인 '2014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4)'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주)코엑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수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조경, 신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절약기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전시관, 국토개발홍보관 등 다양한 전시가 이뤄졌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녹색건축한마당'이 동시에 열려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10월 29일 오전11시에 열린 개막 컷팅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석철 위원장,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 한국건축가협회 한종률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눈여겨 볼 점은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다양한 제품들이었다. 먼저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다색강판'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순수 100% 흙으로만 만드는 황토벽돌 생산회사인 삼한C1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고강도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널'을 선보인 노벨리스에도 건축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건축사들이 전시품목을 직접 경험하고 선정하는 '우수 건축자재 추천제'는 올해도 진행됐다. 전국에서 참가한 건축사들은 새로이 선보인 제품들과 친환경 자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점수를 주기도 했다.

한편, 한국건축산업대전과 동시에 열린 건축사 실무교육은 3일 동안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다. ▲건축사와 직업윤리 ▲지속 가능한 한국형 장수명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설계의 방법론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교육에는 연일 많은 건축사들이 수강했다.

1

1. 전시장 전경
2. 개막식을 알리는 커팅식
3. 전시장을 둘러보는 내외빈들
4. 입장을 위해 등록대에 줄을 선 건축사 회원들
5. 전시장 입구 전경

6, 7, 8. 참가업체 부스
9. UCC공모전 수상자들과 김영수 회장
10. 건축사 실무교육 현장

올해로 23회를 맞은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 「제주 스테이 비우다」, 「메세나폴리스」가 선정됐다. 올해에는 무엇보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작품이 추구하는 일상생활의 질의 지향점, 작품에서 실현된 새로운 기술과 건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여도, 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세계관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했다.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9개의 작은 건축으로 만드는 상가마을공동체인「새로운 도시의 향수_아리랑마을시장」(공주대학교 박정인)이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은 변 용(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수상했다.

한편,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103점, 계획건축물부문 292점 등 총395점이 응모됐으며, 시상식은 지난 11일 5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준공건축물부문

행사일정

▶ 공고 2014. 3. 7 ~ 6. 5
▶ 참가신청(인터넷신청) 6. 5까지_ kaa.kira.or.kr
▶ 접수 6. 9 ~ 6. 10
▶ 심사
- 1차 사진첩심사: 6. 19
- 1차 현장심사: 6. 25
- 2차 현장심사: 7. 8 ~ 7. 11
- 최종심사: 7. 11 (18:00 ~ 19:00)

심사위원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_ 심사위원장
인의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신정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강인호 한남대학교
최재원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이영수 홍익대학교
배기업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석정훈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

대상

<사회공공부문>_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민간부문>_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
<공동주거부문>_메세나폴리스
<일반주거부문>_제주 스테이 비우다

본상

<사회공공부문>_국립세종도서관
<민간부문>_가회동 성당
<공동주거부문>_서울강남지구A-3BL 공동주택
<일반주거부문>_혼신지 집

우수상

성수문화복지회관
한국근대문학관
G타워
마로니에 공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디아크 문화관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주)엔씨소프트 판교R&D센터
데이터센터 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대교타워
CJ 나인브릿지 더 포럼
에프에스원
세종 더 샵레이크파크
매송헌
모노퍼니

1. 행사장 전경
2. 대상·본상 수상자들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좌측 여섯 번째)
3.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와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좌측 여섯 번째)
4. 전시장 개막 커팅식
5. 심사평 중인 민현식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
6.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자인 변용 건축사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들 한다. IT의 획기적 발달이 추동하여 전 지구적으로 구축된 인터넷망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의 시대는 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거대한 생명체로서보다는, 여러 지점을 연결하고 그 실타래를 교차시키는 네트워크로서 경험하는 시기에 있음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으며, 따라서'건축'또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상작으로 자천(自薦)된 건축 작품들은 문자 그대로 '다양'하였다. 펼쳐진 포트폴리오들을 잠시 둘러보고 난 후,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같은 땅,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하는 '설계경기'의 심사기준은 구체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땅,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어진 집으로 경쟁하는 이 상의 심사기준은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능한 실질적 비교가 가능한 가치를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논의를 거듭하면서, 합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건물은 주변의 환경, 특히 자연환경과 어떻게(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이 건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될(된) 사회적 관계는 어떤 것인가. **셋째**, 이 건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며, 더불어 이 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상생활의 질(質)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넷째**, 이 건물에서 실현된 새로운 기술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건축의 질적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다섯째**, 여기에 세워진 건물이 표상하고 있는 세계관 또는 정신적 표상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떤 형상으로 구현되었는가. 특히 그것이 민족적인 기념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코스모폴리탄적 장소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가치로서 개연성을 누구나 인정하는'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이 건물에 마련되어 있는가.
물론 이러한 기준들은 하나의 '건물'에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기준들 간의 상호관계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극히 일반화되어 있긴 하지만, 주관부서인 대한건축사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이 상의 개최목적(1.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3.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에 비추어 우리사회에 이 건물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공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계층 또는 일단의 특정 그룹만을 위한 건물로 그 가치를 일반화시키기에 어렵거나 부적합한 건물 그리고 어떤 특수한 기능만을 위한 건물로서 '인간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결과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유로, 대상 및 본상에서 탈락된 '360 CC 클럽하우스', 'Naver data center GAK' 등은 그것의 건축적 성취가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탁월했음을 여기에 밝혀두고자 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올해의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있다.

2014년의 대상 작품들은 예년에 비하여, 특히 민간부문에 탁월한 작품이 많아 심사위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며, 이 분야에 대상과 본상 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이는 우수상으로 선정된 많은 작품, 특히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H+양지병원', 'F.S. ONE' 등은 다른 부문의 대상/본상 수준과 다르지 않았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주거부문(공동/일반)에 수준 높은 참가작품이 적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특히 '전형적 주택'이 거의 전무한 것과 더불어, 대부분 '비싼 집'이었다는 점은 우리를 크게 당황하게 했다. 또한 공공성의 가치가 고양되어야 할 '사회공공부문' 특히 '관에서 발주한 건축물'들이 민간부문보다 그 공공성에 대한 근본

적인 인식이 낮았음은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었다. 아직도 팽배해 있는 권위적 상징 소위 랜드마크에 대한 미련이 끈질기게 남아있었고, 더불어 마지못한 의무이행에 그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역시 타성에 젖어 있었다. 특히 많은 건축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설계시공 일괄입찰(소위 턴키 방식)의 폐해가 목도되어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5박6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심사하는 동안, 심사위원들 간에 있었던 즐거운 논쟁 몇 가지는 꼭 기록에 남기고 싶다.
첫 번째, 서두에서 밝힌 이 시대에 부응하는 '거주'의 형식에 관한 논의였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거주'는 단순히 주택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모든 건물에서 어떤 새로운 양상의 거주가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건축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였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사회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랜드마크'에 대한 논쟁이었다. 아직도 우리는 높고 큰 거대함과 특별한 형태를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 집착하고 있고, 이는 관에서 행하는 건물들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집중화시대를 넘어 분산의 시대, 다원화시대, 탈중심의 시대에, 서로간의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랜드마크는 아직도 유효한가. 그리고 스펙터클의 사회가 우리에게 수동적인 자세만을 강요한다는 기 드보르(Guy Debord)의 비판에 동의한다면 이제 랜드마크에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이번 심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들과 그 개선책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주최(주관)측에게 건의하고자 한다.

1. 시상부분의 조정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전 시대의 건물분류에 따른 시상내용을 조정할 필요를 절감한다. 즉, 20세기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소위 건축 각론에 의한 분류에 따르기 애매모호한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부문이 그러할 뿐 아니라, 이제 사회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류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2. 공동주거부문의 상의 위계

공동주거의 경우, 그 건축물의 기여도는 '디벨로퍼(developer)', '설계자'그리고 '시공자'순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상의 위계 역시 그 순이기를 바란다. 시공자가 공동주거부문에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디벨로퍼'가 대부분 건설업체였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그 틀에서 한참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3. 기본계획에 참여한 외국건축사의 대우

우리 건축시장이 해외에 개방된 이후, 상당한 건물들의 설계에 외국건축사들의 참여가 점증하고 있고, 그들의 기여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 또한 칭송하기 위하여, 공동수상을 건의한다.

4. 응모작품의 자격

응모작품의 자격이 2년 내 준공 건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막 사용하기 시작한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의 쓰임과 건축사의 의도에 대한 성취가 있었는가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즉 건축사가 의도한대로 그 공간과 장소가 쓰이는가 그리고 건축사가 기대했던, 상상을 넘는 건강한 또는 조악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현대건축의 교의대로 설계되어 칭송받으며 출발한 프루이트 아이고 아파트단지(pruitt-igo housing)가 폭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면의 교사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준공 후, 입주가 정착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것을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건물에 응모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 **민 현 식**

大 賞 〈준공건축물 _ 사회공공부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MCA SEOUL BRANCH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설계자(대통령상) 민현준 _ (주)건축사사무소 엠피아트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지에스건설(주)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국립현대미술관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지에 지어진 공공건물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먼저 그 위치성에 주목하게 되는 건물이다. 군도형 열린미술관으로 해석된 서울관은 분관이지만 사실상 본관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물로, 비록 리모델링 건물인 것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주변 환경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형태로나 배치로나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북촌에 안착한 건물로 평가된다.

작년 11월 개관 이후 반년 사이에 서울관은 북촌, 아니 강북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적 파편들, 즉 경복궁 동쪽 터였던 이 대지에 종친부, 기무사 등 역사적 건물들 사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면서 대지 경계선 부근으로 다양한 마당이 중심이 되면서 관람자가 선택 동선을 취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비록 역사문화 유산 보존의 갈등 구조 속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건물이 중심이 아닌 마당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양식이 배재된 중성적 성격으로 지어진 건물은 작가의 말대로 우리들에게 건물이 배경이 되고 마당과 관람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현대미술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는 작품이다.

1 _ 미술관 마당과 까페테리아
2 _ 푸드코트와 공공보행통로
3 _ 선큰 전시마당
4 _ 공공보행통로
5 _ 서울 박스
6 _ 도서관동에서 바라본 종친부 전경
7 _ 미술관과 자연과의 조화

大 賞 〈준공건축물 _ 민간부문〉

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
PULMUONE LOHAS ACADEMY

— 설계자(대통령상) 김진규 _ (주)휴다임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주식회사 한라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주)로하스아카데미

1

풀무원 로하스 아카데미는 금단산 자락의 서측 계곡에 위치하며 경사지인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었다. 일반적인 패시브 건축물들이 가지는 단순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
기존의 오솔길은 빛이 떨어지는 건물의 복도가 되고 옥상의 산책로는 외부의 길과 자연스럽게 만난다. 재료에도 세심한 노력이 보였는데, 기존 건축물과 숲으로 둘러싸인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목재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쓰여 은은한 향기를 전하고 있고, 숙소에는 황토를 사용하여 편안함을 준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도 외단열, 기밀성, 외부전동차양, 냉난방 100% 지열 및 태양열 사용 등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다. 친환경적인 건축을 만들겠다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의지가 어느 한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화의 측면, 에너지 절약의 측면, 사용자의 쾌적성 측면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 _ 전면(야경)
2 _ 생활실 외부로비
3 _ 외부 전경
4 _ 로비
5 _ 강의실

大 賞 (준주택건축물 _ 공동주거부문)

메세나폴리스
MECENATPOLIS

설계자(대통령상) 박종기 _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웨스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지에스건설(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주)메이저디벨로프먼트

1 _ 공공보행로 외부
2 _ 랜드마크 타워
3 _ 야외공연장
4 _ 센트럴프라자
5 _ 공공보행로 외부

공동주택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과 반성은 공동주택이 스스로 자립하는 공간으로서 보다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연접되고 또 분리되기도 하면서 주변의 공간과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왔다. 이번에 대상을 받는 메세나 폴리스는 이에 대한 설계자의 관심과 노력이 평가되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번 공동주택 부문의 대상은 메세나 폴리스의 개개 건축물보다 그것이 주변 도시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상을 준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메세나 폴리스는 하부의 상업공간을 분절하여 길을 내고 이 길이 도시공간과 유연하게 연계되면서 활력있는 몰 공간을 형성한다. 특히 부지 모서리의 지상레벨을 들여올려 그 사이로 외부공간을 받아 들인다는 개념은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상업공간의 상부 데크가 인접한 도시공간의 가로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연결하여 통합한 조치도 도시공간과 적극적으로 융합하려 한 설계자의 세심한 노력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들이 메세나 폴리스가 갖는 유기적 조직화, 통합적 연계의 노력이 다른 프로젝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상업공간이 중심주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공동주택 부문에서의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주거와 상업, 도시공간이 포괄적 계획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후 융합, 연계, 중첩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大 賞 〈준공건축물 _ 일반주거부문〉

제주 스테이 비우다
JEJU STAY BIUDA

— 설계자(대통령상) 방철린 _ 칸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권지민
—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권지민

1

제주스테이 비우다는 중문 관광단지 근처, 마라도와 가파도가 내려다 보이는 울창한 귤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으로 제주스러운 분위기의 부지이며, 주 진입로와 건물의 매스는 경사진 자연지형을 따라 유기적으로 배치되었다.
제주 돌담과 귤 창고에서 유추된 건축물 이미지는 언뜻 보면 산만한 듯 보이지만 철저히 계산된 매스의 배치로 다양한 지붕선과 사방에서 각기 다른 조형미를 연출하고 있다. 여러 각도의 무채색 콘크리트 벽체는 햇빛을 받아 다양한 색채와 재질감으로 보이며, 건물의 입체감을 상승시킨다. 또한 기단부의 현무암, 중간부의 합판 노출콘크리트, 상부 벽체의 송판 노출콘크리트의 분절된 디자인으로 노출콘크리트의 둔탁한 이미지를 해소시키고 있다.
건물 사이로 보이는 제주바다와 귤밭의 제주도 풍광은 바람과 함께 오감으로 다가온다. 다양한 각도로 배치된 객실들은 각기 다른 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만나는 공간들과 다양한 창호들을 빈틈없이 계획하여 각기 다른 객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돌담, 바람, 전망 등 부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여건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주 특유의 풍광을 유지하면서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계획하였다.
또한 건축주가 직접 제작한 소품과 비품, 사인물들을 보면서 건축사와 수많은 대화와 소통이 있었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며,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느껴진다.

1 _ 야경
2 _ 마당과 전면
3 _ 식당동 2층침실
4 _ 1동 2층좌측 침실
5 _ 3동천창
6 _ 통로
7 _ 식당

本 賞 〈준공건축물 _ 사회공공부문〉

국립세종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설계자(대통령상) 박도권 _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대림산업 주식회사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건설된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역할만이 아니라 지역도서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물로, 우선 그 형태의 상징성으로 인해 세종시의 권위적인 도시 모습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 즉 행복도시의 다이나믹한 상징적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성된 개념으로서 감성적 형태, 감성적 공간 그리고 감성적 체험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 설계된 감성도서관은 전 단계에 걸쳐 BIM 기술이 적용된 건물로 높이 평가된 건물이다.

가장 인상적인 공간인 도서관의 로비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이벤트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마치 문화회관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열려 있고 공간과 시민들이 소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지하 1층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은 지상 2층까지 오픈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다소 산만한 느낌도 받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배려된 공간이라는 기획측면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다만 형태에서 느낄 수 있었던 역동적인 모습이 실내까지 연장되고 있지 못한 점과, 신도시이기 때문이겠으나 너무 형태에만 치우쳐 배치의 단순함으로 인한 휴먼 스케일의 부족은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本 賞 〈준공건축물 _ 민간부문〉

가회동 성당

GAHOEDONG CATHOLIC CHURCH

설계자(대통령상) 우대성 _ (주)건축사사무소 오퍼스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주)평화종합건설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재)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가회동 성당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북촌로 변에 위치하며 성당의 많은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부 사람들을 위한 공공화장실, 북촌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옥상마당 등 공공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며, 이는 설계자의 의지뿐 아니라 이를 적극 수용한 건축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도시조직의 스케일과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상 볼륨을 줄였고, 법적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전면에 한옥 형태의 사랑채를 계획하였다. 또한 본당도 하나의 재료로 처리하지 않고 도로의 전면부에서는 내부에 목재로 들어오고 안마당에서는 화강석으로 마감하는 등 스케일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몇몇 종교건축물들이 교세를 과시하며 과도한 스케일로 지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의 환경과의 적절한 조화와 소박하지만 외부 방문자를 위한 공공적 배려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本 賞 〈준공건축물 _ 공동주거부문〉

서울 강남지구 A-3BL 공동주택

SEOUL GANGNAM DISTRICT A-3BL HOUSING

설계자(대통령상) 강인철 _(주)가아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풍림산업(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상을 수상한 서울 강남지구 A-3BL 공동주택은 이미 국제현상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프로젝트여서 잘 알려진 사례이지만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이 채워지면서 공동주택의 새로운 시도로서의 적정성이나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흔하게 보이는 판상형 주거동을 일자 평행 배치한 방식이지만 특별건축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동거리 완화조항을 최대 활용하면서 독특한 공간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평가할 만한 선례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두 개의 주거동이 마주보면서 하나의 공간단위를 구축하고 이들이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한 점, 남북으로 이어지는 관통동선을 설정하고 이들이 전체 주거동을 엮어 내고 있다는 점 등도 이 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배울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매스와 마찬가지로 입면 역시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주거동별 색채 구분과 이들로 인한 변화감, 저층부과 고층부의 현격한 대비를 통한 스카이라인의 구성 등 이전과 차별화된 단지 구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설사가 디벨로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LH공사의 공동주택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기능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총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의 위계로 인한 고민이 있었음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本 賞 〈준공건축물 _ 일반주거부문〉

혼신지 집

HONSINZI HOUSE

설계자(대통령상) 김현진 _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김용범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김용범

건축부지는 연꽃으로 가득 찬 혼신지를 마주하고 있는 평평한 대지이다. 각각의 기능을 가진 두 개의 매스가 평행으로 배치되고 사이공간을 통하여 주 진입이 이루어진다. 청석으로 된 담장은 건물과 대지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외부의 알루미늄 수평부재는 햇빛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낮게 깔린 건물의 수평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한, 외부의 시멘트 보드와 내부의 화이트오크 마감은 내외부로 관입된 일정한 모듈의 알루미늄 수평띠에 의해 이미지가 연결되어 보인다. 더불어 수평띠와 목재 모듈이 거실 유리가구로 반복되면서 거실 가구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거실 서측에 벽으로 둘러싸인 바깥마당의 가변형 벽체는 혼신지의 전망과 연꽃향기를 다양하게 조절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덧문, 방문, 배수홈통에서 보이는 정교한 디테일과 개성적인 디자인이 엿보인다.

주택은 사용자의 문화와 감성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사용자의 흔적이 지워져 있는 미니멀한 실내공간은 설계와 시공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주택은 사용자의 흔적과 체취가 세월을 두고 입혀지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본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성수문화복지회관

SEONGSU CULTURE & WELFARE CENTER

설계자(대통령상) 신창훈 _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주)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일신건영(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성동구청

서울에서도 도시 성장속도가 느린 지역 중 하나이고 아직도 금속, 고무와 관련된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인 성수동 1가에 세워진 성수문화복지회관은 우선 외부에서 보이는 계단이 만들어 낸 기하학적 형태로 인해 이 지역에 매우 파격적이고 낯설은 건축물로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할 의원과 아트홀, 사회복지관 그리고 도서관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기존 관공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 친숙한 공간으로 이 건물 주변의 음울한 풍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축물로 평가되기는 하나 너무 형태의 복잡함과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접근된 점이 지적되었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한국근대문학관

THE MUSEUM OF KOREAN LITERATURE

설계자(대통령상) 황순우 _ (주)건축사사무소 바인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배명종합건설(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재)인천문화재단

120여년 시간의 궤적을 담고 있는 인천 해안동에 위치한 한국근대문학관. 원래 쌀 창고와 김치공장이였던 건물로 옛 건축물의 흔적을 가급적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시켜 도시의 변화 된 모습을 담아 한국근대문학관으로 탈바꿈시킨 2년여간의 건축사의 숨은 노력이 드러나 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원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많이 드러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G 타워
G-TOWER

설계자(대통령상) 윤세한 _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주)대우건설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인천광역시청

송도 G-Tower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청사로서 간결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조형으로 구성된다.
6개 층으로 구성된 4개의 아트리움과 하늘정원을 특징으로 어느 층도 같지 않은 평면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업무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각각의 아트리움은 그 존의 특징에 맞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마로니에 공원
MARRONNIER PARK

설계자(대통령상) 우의정 _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메타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주)삼일기업공사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종로구청

서울 강북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광장 중 하나인 마로니에 공원은 그 주변의 미술관 등 문화적인 건물과 함께 주민들의 쉼터이자 젊은이들에게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오픈 스페이스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적절히 절제된 가로변의 낮은 2개의 매스와 야외공연장 그리고 기존 나무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지의 높낮음을 이용한 경사로이자 벤치 역할을 하는 자연스러운 동선 처리가 매우 돋보이는 작품이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BUK SEOUL MUSEUM OF ART, SEMA

설계자(대통령상) 한종률 _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한화건설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서울특별시

판상형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노원구 중계동 근린공원에 위치한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은 우선 평평한 대지에 작은 인공동산을 배치시킴으로써 대지의 단조로움을 깨면서 녹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배치구성 개념이 매우 인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최대한 간결하고 절제된 동산 위에 세워진 하얀 2개의 매스 사이로의 주 진입 처리는 매우 자연스럽고 인상적이며, 공원과 건물과의 경사로를 이용하여 대지 전체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점이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디아크 문화관

THE ARC

설계자(대통령상) 은동신 _ (주)이가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대림산업 주식회사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4대강 문화관인 디아크문화관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그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문화관의 비정형적이고 상징적 형태로 인해 매우 강한 이미지를 주는 건물이다.

비정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높은 이 건물은 문화와 휴식이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이 기대된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FKI TOWER

설계자(대통령상) 김병현 _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현대건설(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사)전국경제인연합회

건축물의 외관 전체가 차양과 태양광시스템이 통합된 모듈로 계획되었다.
이런 건축적인 시스템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저층부 별동에는 주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여 전면공간을 일반시민들에게 할애하고 있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주)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PANGYO NC-SOFT R&D CENTER

설계자(대통령상) 김정식 _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 디엠피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지에스건설(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연구동과 업무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직원들의 공용공간으로 건물의 상하부에서 적절하게 연결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하나의 큰 게이트가 되었다.
사옥인 만큼 회사의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하였고 적절한 위치에 내부 직원들을 위한 복지공간들이 충분히 계획되었지만 지역 사회에 폐쇄적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데이터센터 각
NAVER DATA CENTER GAK

설계자(대통령상) 김 혁 _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 디엠피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지에스건설(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네이버 주식회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로 경사지에 순응할 수 있도록 건물은 다랭이논 형태를 지닌다.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에어컨이 아닌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서버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온실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적 시스템 구축이 돋보인다. 반면 대부분 서버를 위한 시설이며 일부 직원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를 위한 시설이 없는 점은 수상 여부에 논란이 되었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H+YANGJI HOSPITAL

설계자(대통령상) 권연하 _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시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주)트래콘건설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김철수

중규모의 지역 병원건물로 대지의 단차를 자연스럽게 로비공간으로 연결하여 극복하였고 로비공간, 대기공간, 식당 등 공용공간에 충분한 면적과 쾌적성을 확보하였다.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병원인 만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대교타워
DAEKYO TOWER

설계자(대통령상) 윤수현 _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두산건설 주식회사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주)대교

고층 빌딩과 저층 주거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는데, 수평적으로 건축물을 분절하는 전략을 통해 스케일의 차이를 해소하고 있다. 리모델링 건물에 의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용공간을 제공하고 저층부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개방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CJ 나인브릿지 더 포럼
CJ NINE BRIDGES; THE FORUM

설계자(대통령상) 김선현 _ 디림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일호종합건설(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씨제이건설(주)

낮은 구릉 형태를 지닌 건물은 제주의 지형에 잘 순응하고 있다. 대공간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지하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변의 삼나무 숲보다 낮게 건물을 계획하여 풍경과 잘 조화된다. 연속된 경사판이 실제 잔디를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시각적 연결뿐 아니라 다양한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점은 흥미로웠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에프에스원

F. S. ONE

설계자(대통령상) 곽희수 _ (주)이뎀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삼협종합건설(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노왕우

상업지역에 지어진 건물로 법정용적률의 1/3만 계획하며 도시에 여유로운 수직적 오프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상하부로 나누어진 매스를 계단판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떠있는 박스로 처리하여 다양한 시퀀스를 연출하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다양한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플랫폼이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공간이기보다는 상업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그 쓰임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

SEJONG THE SHARP LAKEPARK

설계자(대통령상) 최기철 _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주)포스코건설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주)포스코건설

호수 공원을 남면하고 있는 매우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한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는 호수에 면하는 전면동을 테라스형 주택으로 구성하고 상층부 높이를 조절하여 호수변 경관을 독특하게 만들고 있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매송헌
MAESONGHEON

설계자(대통령상) 방철린 _ 칸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이치선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이치선

대지는 주변 주택에 둘러싸여 있으며 북측으로 경사진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중정에 배치된 시계방향의 계단을 중심으로 모든 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실들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동선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개방 기능을 가진 거실과 식당부를 상부에 배치하였고, 후면의 거실에서 한식 창을 열면 전면의 누와 중정을 통하여 한강이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작고 열악한 대지환경 속에서 각 실에서의 개방감과 전망을 유지하면서 넓은 건축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였고, 북측으로 경사진 대지조건을 중정과 천창으로 훌륭하게 극복한 작품이다.

優秀賞 〈준공건축물〉

모노퍼니
MONO FUNNY

설계자(대통령상) 윤준호 _ 아침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이민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이민주

건축물에 쓰였던 시멘트 블록을 경사진 대지 전체에 지형의 선을 만들어 건물과 대지 조경이 하나로 읽히는 건축물이다.
한옥의 세 칸 집을 기본형태로 한 품(品)자형 배치로 침실, 식당, 욕실이 한 칸씩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떨어져 있는 세 칸은 ㄱ자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 수직 세칸, 수평 세 칸 등 전 세대를 다르게 배치하여 사면에서 다양한 건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렴한 건축재료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공간계획과 디테일의 시도가 신선한 작품이다.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작

대상
새로운 도시의 향수

최우수상
무비누비 - Reinfill in 충무로
정릉골 골목대장
녹슨 미래, 시간의 길

우수상
흔적을 따라 걸어가다
시장 속 이웃맺기
비우다, 열리다, 스며들다
사라진 터, 기억의 무덤
용마랜드 폐건물 재생계획안
일상, 자연, 공간, 사람이 마주치는 아파트
동대문아파트, 패션 허브로 거듭나다
동상이몽(洞相異夢)

입선
기억의 영속성
서로(西路)를 담는 지역방송국
오감공간
충무로 세컨플로어
아직 있네, 그 발걸음
장소의 공간
고밀도 도시 속 분산형 버스차고지의 프로토타입 제안
우리 마을에 놀러와
나는 아빠와 엄마를 닮았다
새로운 집, 오래된 이웃
브랜드 韓(한)
틈새의 새싹
소제동의 空間列記
성안길 이야기
동네슈퍼 구하기
이중공격
도심 속 상공인마을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2014. 3. 7 ~ 5. 25
▶ **접수**
- 1차 작품계획(안) 접수 : 6. 3 ~ 6. 4 (09:00 ~ 18:00)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7. 15 (09:00 ~ 18:00)
▶ **심사**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6. 13
- 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7. 16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 : 7. 18
▶ **시상식** 11. 5 (14:00)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수상작 전시** 11. 5 ~ 11. 7 / 건설회관 2층 로비

심사위원

신춘규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_ 심사위원장
이은석 경희대학교
안길전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아희 (주)경인 건축사사무소
최재원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계획건축물부분 **심사총평**

이번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의 주제는 '오래된 미래: 나만의 미래'로,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계획을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이 현실을 기반하여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기대하였는데, 상당수의 작품들이 합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작품을 심사하는 원칙은 우선 주제에 대한 충실성에 두었다. 훌륭한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맞지 않거나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감히 배제하였다. 이번 주제는 건축하는 과정이 우리가 속한 현실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상기하는 것으로, 그에 합당한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다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축적 전략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적합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당한 건축적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그 도시 혹은 지역에 내재된 잠재력을 주제에 맞게 적확한 건축적 어휘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한 표현의 적절성과 건축계획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보았다. 심사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진 항목으로 최종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주제를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등 결과의 구체적인 완성도가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였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은 각각의 도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도시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 수작들이었다. 1차 심사에 통과한 몇 작품은 최종 결과물을 모두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시간에 제출하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미 1차 심사에서 그 수준을 인정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입선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2차 심사를 거쳐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에 오른 작품은 건축문화대상의 취지와 주제에 부응했고 건축적 완성도가 높았다. 상당한 수준의 작품들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주제를 건축화하는 전략의 타당성과 그것을 풀어가는 치열함,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도를 기준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대상으로 뽑힌 '새로운 도시의 향수_아리랑 마을시장'은 기존 도시조직이 가지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새롭게 해석해 내어 지속가능한 마을 조직을 만들어 냈다. 과도한 계획보다는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하였고, 형태에서 재료까지 기존 시장 조직과 잘 조화가 되도록 세심히 신경써서 계획한 부분이 돋보였다. 특히 계획의 완성도 면에서 심사위원들이 놀란 정도의 밀도 있는 결과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무비누비-Reinfill in 충무로'는 기존 도시조직을 세밀히 분석하여 손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연결하고 비워내는 전략을 성실하게 건축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일반적으로 헐고 새로 짓는 대규모 개발방식을 넘어 대안적인 개발방식을 제안했고, 새로운 건물에 의해 기존건물들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릉골 골목대장'은 경사지의 낙후된 마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수직적인 경사에 의해 막혀 있던 길들을 연결하여 보행성을 개선하고 마을에 부족했던 공공영역들을 제안하였다. 경사형 대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공시설을 통해 수직적인 두 공간을 연결하고 기존 건물들을 적극 활용하여 연속된 공공공간을 만들어 가는 전략을 취했는데, 하나의 건물이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기존 마을이 가지는 가치를 돋보이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녹슨 미래, 시간의 길'은 버려진 취수장을 건축학도의 시선으로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작품이다. 도전적이고 과감한 디자인이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기존의 유휴 산업시설물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시설물은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건축인이 해석해낸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은 도시재생방법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다른 대지와 주제를 가진 건축계획작품을 심사해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들의 부주의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작품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고, 심사위원들 간의 끊임없는 토의로 당선작들을 선정해 나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분에 참가해 수준 높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간 모든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주제를 선정하면서도 기대했듯이 젊은 건축학도들이 우리 주변 현실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진 건축으로 건축계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해 본다.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 **신 춘 규**

大 賞 〈계획건축물〉

새로운 도시의 향수 아리랑 마을시장 ;

9개의 작은건축으로 만드는 상가마을공동체

박정인
공주대학교 건축학과

아리랑시장은 개발에 의해서 시장의 중심이 옮겨지고 주변이 변화하면서 시장과 어우러지던 건물들이 아닌 아파트들로 채워졌고,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의 모습과 대조되어 이질적 존재로 남게 되었다. 개발로 인해 늘어난 정주인구로 아리랑시장이 활기를 띄기는커녕 차량이동통로로 전락하여 시장은 보행과 소비 모두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지만 정작 시장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알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아리랑시장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 답은 '지역'에 있다. 정릉동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리랑시장도 50여년 넘게 이어진 오래된 시장이다. 지역이 갖고 있는 건축, 공동체, 환경 등 예전부터 이어져온 여러 가지 가치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정말 오래도록 자생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재개발을 역설적으로 생각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재개발로 시장이 잘리는 대신, 새 도로가 만드는 축의 방향으로 시장을 확장시켜서 단순히 시장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길과 태초의 시장길이 서로 융화되면서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장의 모습을 그려본다.
시장의 맥락을 읽고 동선 내에 위치하는 시각·공간적 결절점들에 머물 수 있는 소비공간, 공동체 공간, 그리고 상가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담은 9개의 작은 건축을 만들어 시장 내에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서로 긍정적인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벽돌·타일 등 익숙한 재료와 새로운 재료, 개발로 인해 사라질 한옥으로 정릉에 대한 오마주를 나타낸 9개의 건축물들이 시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연속된 풍경에서 익숙하지만 새로운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

정릉의 제1의 공간과 제2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아리랑시장이 제3의 공간으로서, 파편화된 삶이 아닌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最優秀賞 〈계획건축물〉

무비누비 – Reinfill in 충무로

조대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전공

무형인 시간은 유형인 것에 깃든다. 급변하는 시기에 유형의 것의 가치는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의 시선으로 평가되었다. 개발의 논리 또한 여백이 없는, 공공성이 없는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러한 개발방식이 남기는 것은 몰지역성과 몰역사성이다.
충무로는 몰지역성과 몰역사성의 좋은 예다. 충무로의 영화산업을 이끌던 영화사들은 강남의 개발을 계기로 도산대로로 자리를 옮겼고, 지명 또한 횡축에 따라 종로 1,2,3,4,5가의 법정동을 이루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2010년에 돈화문로의 중간을 분리하여 생겼을 뿐이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는 과거 한국영화 종사자들의 장이었던 스타다방과 청맥다방이 있던 자리로, 2005년 지정되었다. 충무로 사람들을 묶어주던 영화라는 콘텐츠가 사라지고 영화산업의 부수산업이었던 인쇄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인쇄업들은 각자의 일에만 틀어박혀 있을 뿐이고 가로 환경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충무로에 있는 영화의 거리에 시네마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네마테크는 영화의 아카이브이며 공공영상도서관이다. 현재 시네마테크는 강북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디영화나 비상업영화를 상영해주는 독립영화관에 가까울 뿐이다. 또한 한국영화 시장은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으나 예술, 비상업영화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영화산업의 질적 증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네마테크로 한국영화산업의 질적인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금 충무로를 묶어 영화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영화의 거리는 충무로의 옛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조직은 충무로의 과거 흔적이며, 기억이고 저장고이지만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고층의 단일 건물로 된 시네마테크가 아닌 흩뿌림을 통해 거리에 배치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시네마테크가 가로경관에 도움이 되고, 배치된 프로그램을 다양한 높이에서 연결시킴으로써 유기적인 건물로 구성하고자 한다. 끼워넣기의 개발방식은 역설적으로 끼워넣지 않은 부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두 건물은 보존하여 과거의 층을 보존하고 시네마테크는 개발 당시의 시간의 층을 형성한다. 여백은 현재 기존의 것으로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라 점진 적으로 변하게 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층이 시간에 따라 퇴적되며 영화의 거리는 충무로의 역사를 담는 거리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를 향유하고 증진시키는 이들이 그리고 문화가 그 거리를 채워 나갈 것이다.

最優秀賞 〈계획건축물〉

정릉골 골목대장

조하늘 · 노유리 · 연권모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북한산자락 경사지에 터 잡은 정릉골 주거지의 대지 특성에 따른 공공영역의 회복과 주거지변화에 대한 대안제시

정릉골 ; 정릉골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지 마을이다. 50년대에 확대되면서 현재 모습이 되었고, 8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정릉골을 제외한 인근마을은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정릉골을 이루는 길들을 수평길과 수직길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3개의 마을입구가 있는 안길(수평길)을 통해 마을로 들어와 수직길을 통해 마을 꼭대기에 있는 수평길인 마을하늘길로 접근이 가능하다. 즉, '하늘길'을 통해 마을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 정릉골에는 같이 공유되는 가치가 있다. 마을의 장소성, 역사는 '길'에서 나온다. 길을 보존하는 것은 지형, 문화 그리고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다. 정릉골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존의 길을 무시하는 개발방식이 아닌 길의 역사를 남기는 대안개발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기 ; 정릉골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길을 쉽고 즐겁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첫째, 길을 공간화하고 수직길을 수평길로 늘려 보다 나은 보행성 확보 ; 둘째, 끊어진 차량동선을 잇고, 노후한 주거지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 셋째, 경사지에 공공영역을 제안해 상처받은 커뮤니티의 회복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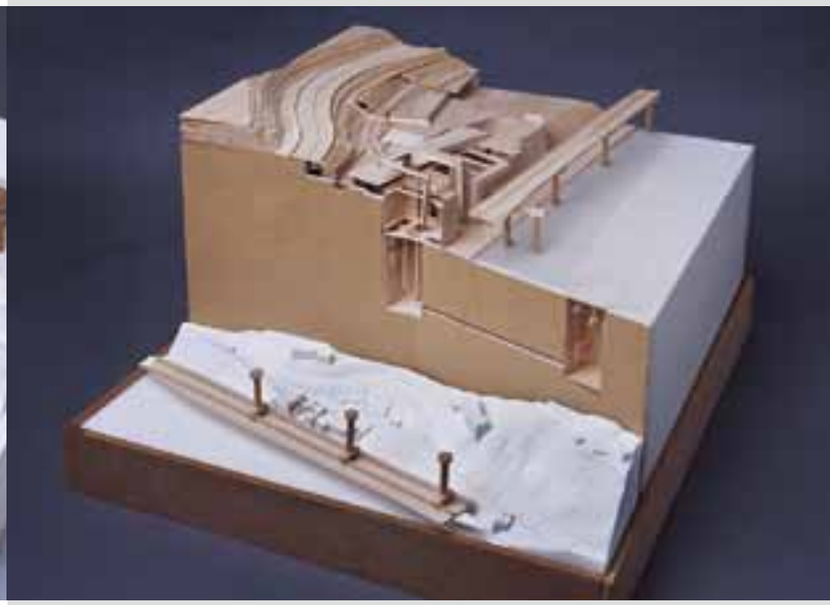
그리고 마을 공공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를 통해 편하고 즐겁게 길을 통해 살아가는 정릉골의 모습을 그려본다.
- 옹벽으로 막힌 마을 입구를 기존 건물와 경사를 이용한 '숲속나눔도서관'으로 열어주기
- 마을 안길은 마을정자와 마을잔치를 겸할 수 있는 장으로, 정릉골의 중심공간 형성하기
- 가장 가파른 수직길을 경사에 대응하는 건물과 마당으로 공간화한 놀이방을 제안하였다.

정릉골 골목대장 ; 골목대장들이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하고 기억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어른아이 골목대장들의 귀환을 꿈꿔봅니다.

最優秀賞 〈계획건축물〉

녹슨 미래, 시간의 길

박경은 · 김한빛 · 김 파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그레고르 잠자(Gregor Samsa)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위에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 변신(Die Verwandlung), Franz Kafka

이 프로젝트는 '변신'이라는 허구를 통해 제한된 일상을 넘어서서 욕망과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판타지를 그리고 있다. 20세기 후반 탈산업화 사회가 도래하자 도시가 팽창하고 확장되면서 기존의 경계지역으로 밀려났던 산업시설들이 도심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폐허화된 빈 산업시설들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도시의 경계를 품게 된 것이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구의 취수장의 경우도 도심의 일부로 편입된 모호한 시설로, 근래에 도시생활 수요에 의하여 한강 수변공간이 활성화되면서 경계영역의 재활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이 공간이 '우리나라 거리예술문화의 인큐베이터'로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문화공간-도시재생'의 의미 없는 미션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빈 공간이기에 예술공간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획일적인 추세에서 벗어나 수변과 자전거도로, 그리고 도시공간 사이에서 '신화적 경계상황' 그 자체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좀 더 개인적이고 충격적이며, 그래서 그 낯섦을 통해 일상을 다른 가치로 치환할 수는 없는 것인가?
계획안은 한강변의 일상을 중심으로 현재 방치된 취수장을 도심지 경계상황으로부터 일상공간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처럼 일상에 대한 '충격'을 통해 현대도시의 경험을 유도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시나리오는 취수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기능을 멈춘 기계들이 변신을 꾀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기능이 해체된 취수 펌프의 파편들이 자라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 안에서 각각 꼴라주되고 재코드화 된 후 밖으로 빠져 나오려고 한다. 그 힘으로 취수장 건물 외벽이 변형되면서 대지에 면한 아차산로와 한강북단 자전거도로와의 레벨 차이를 극복하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구의 취수장 내·외부를 거닐며 도시 속에서 개인적 경계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보다는 폐허의 취향을 절정에 다다르게 함으로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오래된 미래의 프로그램을 조성하고자 한다. 모더니즘의 낯설게 하기(estrangement)와 소외(alienation)를 전략으로 채택하되 ,도시와 건축과의 접합과정에서 전통적인 건축의 관습을 파괴한다. 자전거 이용자들과 방문객들은 스스로 행위를 창출하고(돌아다니기, 걸터앉기),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며,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할 것이다.

優秀賞 〈계획건축물〉

흔적을 따라 걸어가다

이지한 · 이상우 · 김익환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도시구조는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사람, 문화, 자연을 무시하고 건축은 단지와 도시를 이루는 부속품으로 전락하였다. 주변과 관계성, 소통을 이끌어낼 장을 제안하며, 그 안의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설로 구성하였다. 건물 외부의 공원 프로그램은 휴식, 놀이, 전시, 공연 등의 공간들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다양한 행위와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공간을 형성하며, 채워져 나가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살고 싶은 도시는 결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 속, 즉 익숙한 공간과 건물, 길 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길(폐선로)을 따라 오래된 건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지, 숨겨진 골목길(공간) 등을 찾아 본래 모습의 흔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과거 도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모산역의 폐역사는 도시 맥락이 변하면서 지역을 단절시키는 도심 속의 황무지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에 현저하게 부족한 녹지공간과 커뮤니티시설을 폐선부지와 유휴지를 활용하여 단순히 공원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마을 전체를 모아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폐선부지를 활용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원을 만들어주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삽입하여서 제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도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적인 흐름, 익숙한 구조, 장소, 등을 재발견하고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지와 버려진 폐선부지, 오래된 건물, 재보수가 필요한 공간과 건물들을 발견하여 여러 가지 모습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프로그램을 삽입시켜 주었다. 다양한 계획들을 통해 배방읍만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합적 네트워크화를 통해 도시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優秀賞 〈계획건축물〉

시장 속 이웃맺기

박주하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시장은 지금까지 서민들에게 있어 수요와 공급의 장소를 넘어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리고 하나의 삶의 장으로서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비패턴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많은 변화가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속한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대림시장도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일터와 소통의 장소였던 곳이었지만,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 대림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구는 다문화 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최근 한국 거주 외국인은 15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중에서 다문화가족은 58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할 정도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림시장을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로 제안한다. 시장은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도심과의 친밀도가 좋으며 지역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마켓 플레이스는 문화적인 활동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되며,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전시를 보러 오거나 공연이나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축제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공감할 수도 있다.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하나가 되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문화성의 차이를 이해하며 배울 수 있으고, 지역 활성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優秀賞 〈계획건축물〉

비우다, 열리다, 스며들다

김은진 · 강도임 · 서윤아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우리는 흔히 도시를 미래라고 말한다. 미래의 모습은 발전된 도시의 모습으로 상상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오래된 도시', 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졌던 도시들은 어떤 미래의 모습을 상상했을까? 구도심에서 도시를 만들 때는 건물이 사람을 모으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옛 골목길, 마당을 찻길과 건물들로 덮어버렸다. 이런 빽빽한 도시는 상권에 이동에 따라 빈 상가가 생겨나고 어두운 맹지의 건물에는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

'나만의 우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았던 90년대 도시의 추억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오래된 도시의 추억을 되돌려 주는, 비어버린 공간을 다시 사람들이 찾게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찾는 어린아이는 추억을 만들어가고 어른들은 옛날의 추억을 되살려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였다.

도시가 생겨난 과정과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본 후, 다섯 가구로 이루어진 곳을 골라 맹지에 있는 빈 주거와 창고를 철거하여 마당으로 비웠다.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거 및 리모델링을 통해 필로티를 만들어 길을 열어주고, 각 마당을 주변 환경과 맞는 프로그램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변에 스며들게 하여 잊힌 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였다.

첫째와 둘째 마당에는 한복거리와 함께 조성할 수 있고 전통혼례식장으로도 사용 가능한 주차장 및 전통체험장을 만들었고, 셋째마당은 휴식공간과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넷째마당은 분수와 벤치를 이용하여 아이와 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마지막은 붙어있는 상가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큰 상가처럼 만들기 위해 맞벽을 연결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플리마켓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조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당과 새로운 길과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이 도시공간을 이루어지지 못한 미래가 아닌, 나만의 추억이 아닌 우리의 추억이 될 미래의 모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優秀賞 〈계획건축물〉

사라진 터, 기억의 무덤

김대용
경남대학교 건축학과

한국은 '일제강점기-6.25전쟁-민주화-산업화' 등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룬 나라다. 예로부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 아래에 옛 것을 본받고 존중하는 나라였지만 역사적 장소성은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있다. 지역적인 역사성을 지닌 장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장소성을 살리지 못한 대지 및 숨겨진 건물들이 많은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역사적 장소성을 가진 잊힌 땅 그리고 남아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획해보았다.
마산은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민주화를 거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다. 그러한 역사적 잔재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지만 舊마산형무소는 마산의 역사와 함께 한 억압과 탄압 그리고 폭력적인 통치권력을 상징했던 대지다. 일제통감정치시절이었던 1909년에 부산감옥소 마산분감으로 사용된 후 무려 60여 년간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자리이며, 일제 때는 독립 운동가들이, 해방 후에는 좌우이념 갈등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갇혔던 곳이다. 3.1운동 때에는 유명한 삼진의거를 비롯하여 마산, 함안, 창원, 웅동 등 인근지역에서 만세를 불렀던 모든 선조들이 이곳에 갇혔던 폭력적인 통치권력을 상징하던 대지다.
이 대지는 마산의 원도심인 창동이 있는 부근으로 그 주변으로는 조선시대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장소성을 가진 곳들이 많이 남아있다. 창동은 현재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과거 문화의 거리에서 예술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에 250년 역사의 골목길들을 가꾸어가고 있다.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 대지의 장소성을 부각시키며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서 단절됐던 땅을 시민들의 자유-소통의 땅으로 긍정적인 환원을 시키고자 한다.
원도심 주변에 충분한 녹지-휴식공간이 없으므로 대지 전체를 공원으로 계획하고 건물을 최소화하여 지하로 넣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녹지와 연관된 수공간을 이용해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추모하고 치유하며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다. 전시코트는 지하전시공간으로 들어가는 전이공간이자 건물의 최소화를 위해 계획하였고, 일제시대부터 민주화까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추모-외부전시로 역사적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전시로 주변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였다. 또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지하에 위치한 전시공간은 한국의 우울했던 과거사를 채워 공간감을 통해서도 그 당시 상화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공간감을 통해 침묵하고 깊은 생각에 잠길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감춰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부각시켜 알리고자 계획해보았다.

優秀賞 〈계획건축물〉

용마랜드 폐건물 재생계획안

박형재 · 박주석 · 박장호
홍익대학교 건축학전공

PROLOGUE. 15년간 방치된 용마랜드 폐건물

용마랜드는 1983년 개장하여 지역 주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이지만 접근성, 대형 놀이공원들에 의해 밀려나면서 폐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용마랜드에 위치한 폐건물은 용마 스포츠센터로 계획되어 지어졌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1999년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도 중랑구의 버려지고 소외된 장소가 되어버렸다. 용마랜드 폐건물은 지난 15년간 방치 되면서 주변과의 관계성은 물론 접근성도 막고 있는 단절의 공간으로 남아있다.

주변에는 망우산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고, 이 길을 따라 체육공원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이 길게 늘어져 있다. 이런 흐름들의 공통분모는 '생활체육'이다. 체육시설이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스포츠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수용해줄 공간이 없다. 또한 용마랜드 폐건물은 망우산을 따라 생긴 긴 흐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을 단절하고 있다.

PLAN. 용마랜드 폐건물의 재생계획

용마랜드 폐건물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체육시설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절된 흐름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주변 산책로와 흐름을 연결해 접근성을 최대화하였고, 내부동선도 하나의 산책로처럼 계획하여 흐름을 형성하였다. 그 흐름에는 프로그램들이 연결되어 있다. 바로 주변 체육시설들을 존중해주되 기존에 없는 체육 프로그램들이다. 이를 통해 도시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 통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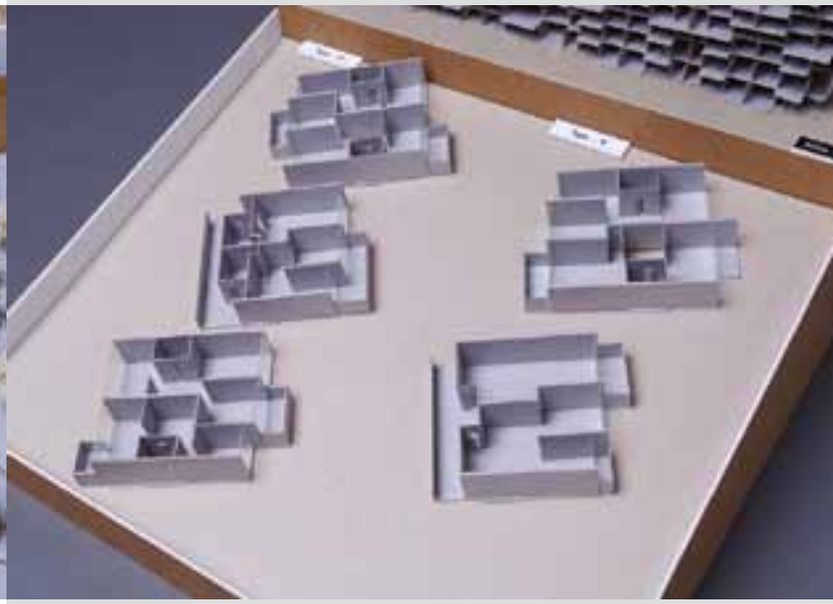
EPILOGUE. 잊힌 추억의 장소, 그리고 새로운 추억의 장소

지역의 추억이 담긴 용마랜드는 대규모 개발에 밀려 잊히고 소외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적인 흐름 즉, 스포츠라는 공통분모로 지역의 공공성을 위한 장소가 되어 향후 지역 소통의 중심적인 공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새로운 용마랜드는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닌, 과거 용마랜드가 그러했듯이 작지만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될 것이다.

優秀賞 〈계획건축물〉

일상, 자연, 공간, 사람이 마주치는 아파트

장 일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현재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아파트공화국이다. 마당이 함께하는 집을 꿈꾸다가도 아파트의 편리함을 선택하곤 한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까지 더해져 지금과 같은 성냥갑 모음이 된 것이다. 오늘날, 긴 세월동안 한국의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아파트는 노후화, 커뮤니티의 단절, 획일화된 평면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이 마주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라는 기본 개념을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사용하였다.

단일화되고 통로로서의 역할만 하는 수평의 복도는 커뮤니티의 집결지였던 과거의 골목이라는 요소를 삽입하여 기존 골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적과 레벨을 가지고 있는 길, 다양한 커뮤니티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수직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계단에는 그 속성을 이용하여 영화관이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공존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단위세대는 기존의 각층에서 각 세대의 현관을 가지고 있던 것을 현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 수직적으로 나뉘었던 각 세대를 2개 층 또는 3개 층이 한 현관을 공유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코니 또한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사람들이 마주보며 함께 공동체적 의식을 가져 보다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세대가 있던 곳에는 사람들이 공용할 수 있는 공동목욕탕, 빨래방, 텃밭, 운동시설, 공부방 등을 만들고, 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임대주거를 병합시켜 소외된 계층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타입들을 구석구석 삽입시켜 아파트 전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노후화나 커뮤니티 단절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안을 제시하고, 아파트의 공간요소(평면, 계단, 복도, 옥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프로그램을 삽입하거나 체계를 확립시켜 줌으로써, 더 이상은 내가 사는 집, 나만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 행복한 집이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 냄에 목적을 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優秀賞 〈계획건축물〉

동대문아파트, 패션 허브로 거듭나다

김경호 · 이현정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한강의 기적과 함께 이루어진 대규모 철거와 재개발은 오로지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자본주의적 잣대만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었던 작은 골목들은 뒤로 밀려 나게 되었고, 그 지역만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과 같은 가치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주변 지역의 가치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건축을 고민했다.

대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의 동대문 아파트로, 효율적인 주거만을 위해 설계된 근·현대 건축물이다. 종로구 창신동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지역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거창한 재개발 계획보다도 작은 커뮤니티 형성 및 해당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공간 제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패션산업구조의 문제점인 선형적 산업구조와 복잡한 유통과정을 해결해 줄, 패션과 관련된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했다.

현재 동대문 아파트는 좁고 긴 중정으로 채광이 부족하며, 단순한 주거 유닛이 반복되고 그 입면 또한 획일화되어 있다. 우선 2개 동의 높이를 달리해 채광 문제를 해결하고, 매스의 저층부에 필로티와 보이드를 배치해 조망 및 동선 문제를 해결했다. 좁은 중정을 대폭 넓히고, 공간 간 동선을 고려해 복도의 위치를 중정 쪽과 바깥 쪽 등으로 다양하게 재구성했다. 패션 허브의 저층부에는 패션과 관련된 공적인 공간이 주로 배치되었는데, 이에 따라 복도도 중정 쪽으로 배치했다.

주거 등 사적 공간이 주를 이루는 상층부에는 복도를 바깥쪽으로 배치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했다. 주거유닛 사이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해 거주자 간의 유대감을 도모했고, 공간의 성격에 따라 입면요소의 높이를 조절해 그 플로우를 입면 디자인에 반영했다. 기존 동대문 아파트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으로 건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패션과 관련된 복합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해석해보았다.

優秀賞 〈계획건축물〉

동상이몽(洞相異夢)

사광균 · 이희원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주거는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규제로 조절하려 한다. 그래서 완전한 통제를 실현하고 억압적인 제도 또는 체제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공동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종속된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사회제도 자체가 소외를 낳고, 인간미 넘치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의 형성을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에서는 끊임없는 단절이 발생하고 도시의 미학은 파편의 미학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삶이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새로운 가치와 기존의 가치 즉 다양함의 동등한 가치, 또 너와 나, 우리가 모두 다르지만 존중되어야 한다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낳고 있다.
본 공모전의 주제인 지속가능성을 표현하는 '오래된 미래'와 공공성을 표현하는 '나만의 우리'라는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하여 과거의 주거와 현재의 주거가 공존하는 개발대상 도시를 사이트로 삼았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가 사라진 현대주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발될 필지에 과거의 주거가 갖고 있던 커뮤니티의 요소들을 재창조 하여 오래된 것에서 미래를 보고 오래된 미래를 표현하고 그렇게 재창조된 새로운 주거 속에서 공공성을 찾아내어 나만의 우리를 표현하여 새로운 공동주거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 곳이 바로 같은 곳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다른 생각과 행동을 이루는 '동同상床이異몽夢'과 같은 곳이다.
사이트로 선정한 청주대 중문 우암동 일대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여러 오래된 주택들이 현대의 다가구주택들과 혼재돼 있으며, 과거 커뮤니티의 발생지였던 골목길 또한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사라진 채 필지를 가득 채운 많은 신축원룸들과 상가들은 열려있던 주택의 담들마저 폐쇄적으로 변화시키고, 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공유공간과 골목길의 기능을 상실한 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커뮤니티가 상실된 모습이다.
본 사이트에서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바로 커뮤니티가 일어나기 위한 요소로서 기존 마을사람들의 공유공간이었던 골목길, 마당, 마루, 계단 등의 요소들과 현재의 사이트 상황 및 조건, 즉 현대의 가치들을 같이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동상이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과 집 사이의 새로운 도시조직을 넣어 유연한 경계 영역을 만들고, 현대의 주거와 삶 속에 사라진 공유공간과 커뮤니티를 건축적 제안으로 재생성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경계가 유연해지면서 생성된 여러 공유공간은 같은 공간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참여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행위, 다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옹벽 축조와 건축허가 등의 요부

The principal parts in breast wall building and its permission.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건축법 상 대지(垈地)는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건축법 제40조 제1항),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건축법 제40조 제2항),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건축법 제40조),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0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는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며(다만,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의 축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을 신고를 요하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3조 제1항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 등을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은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는 건축사법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등을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아울러 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열거하고 있고, 건축법 제14조 제2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③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참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축조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도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이를 축조한 건축주 및 시공자는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건축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글. 송하엽_ Song, Ha-yub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현실은 역사감(歷史感)이다

<장소의 재탄생 : 한국근대건축의 충돌과 확장> 展을 보고

Reality is a sense of history
- An exhibition review ‹Rebirth of place: Expansions & Conflict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사람 머리도 채 내밀 수 없을 만큼 좁은 직사각형 창은 이 건물을 마치 미술관이나 고급 호텔처럼 보이게 합니다 … 이 건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로 불렸던 김수근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담아 설계한, 살아 있는 건물입니다."

김근태_ 저서 『짐승의 시간』 중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뒤집혔죠 / 다들 꼭 잡아요
잠깐 사이에 사라지죠"

서태지_ 노래 '소격동' 중

2009년 서울현대미술관의 시작을 알리는 기무사의 <신호탄>展은 용도가 폐기되며 새롭게 미술관으로 탈바꿈할 건물에 대한 오마주와 기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심장을 꼬집는 충격적인 작품들이 있었다. 집권자의 침실과 욕실을 재현하여, 여배우에 대한 탐닉을 풍자한 침대와 장미그림을 놓고, 창녀촌을 분홍색 전경방패로 보호하는 모습 등등 타락했던 권력의 역사를 비꼬았다.

언제부터 우리는 복고, 레트로, 빈티지 등에 익숙해졌지만 <장소의 재탄생 : 한국근대건축의 충돌과 확장>展(이하 '충돌과 확장'展)에서 소주제로 다룬 '권력의 이양'은 근대화의 주도적 장소와 과거 폭력정치의 장소가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양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많지만, 우리 공간들에서는 유독 지배계층의 허와 실이 느껴진다. 수탈, 횡포, 독재, 고문, 감시 등등의 기억이 건물의 이미지와 장소의 풍경과 겹친다.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문화를 배우는 곳으로 쓰이지만, 세상물정을 알게 될 쯤에 벽면에 쓰인 사실을 아는 게 나을 것이다.

사실 제일 아픈 기억의 건물은 이 전시에서 다루지 못할 정도로 아련하다. 그 중에서도 남영동 대공분실, 이곳은 허망함과 죄송함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곳이다.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고 있지만 필자는 여전히 가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많은 민주인사들이 극단적 트라우마를 겪은 곳이다. 고문소에서 인권센터로 극단적인 '권력의 이양'이 발생한 곳이지만, 그곳의 건축 껍데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문이 굳게 닫힌 저녁의 모습은 바늘귀 하나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검은 철문이 가리고 있을 정도로… 건물 그 자체는 당시의 수준보다 꽤 치밀하게 지어져 있어 현재도 보존 가치는 충분하지만, 경찰청 인권센터라는 사실이 그 당시의 것과 극과 극으로 반대여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권력의 이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건축은 껍데기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구에서 하나의 결

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전시는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독단에서 벗어나는 건축적인 따스함을. '풍경의 재현'에서는 철도역, 신문사, 극장, 법원 등의 근대화의 기관들이 현대의 문화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며, 어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근대인에서 현대인으로의 권력의 이양을 보여주고 있다. 겉모습이 바뀌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하면서, 근대의 신선함은 놀랍게도 현대의 빈티지로 차용되고 있다. '풍경의 재현'은 근대의 풍경이 시간의 흐름의 질서를 보여준다는 해석을 하지만, 언젠가는 건물의 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는 장도 필요할 것이다.

'권력의 이양'이 사회제도에서의 힘의 전이를 보여준다면, '풍경의 재현'은 일상의 거리에서 건물이 변모하는 시간의 전이를 보여준다. 인간의 제도와 자연의 시간, 즉 권력과 풍경의 주제는 공간과 장소를 형성하는 양대 요소임을 재확인 시켜준다.

나머지 주제인 '사라진 기억', '주체의 귀환', '연결될 미래'는 건축 자율성에 대한 의도가 담겨있다. 건물이 사라지고 잊힌 건물이 다시 돌아오며, 건물이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으로, 가치체계의 개입보다는 유형문화의 최고봉인 건축, 그 자율성에 대한 재확인이다. 지금은 사라진 건물들의 파사드가 전시장의 입구에 무덤과도 같은 느낌의 볼트(Vault) 벽에 생생한 느낌의 선들로 살아 있다.

'주체의 귀환'은 잊힌 건축사의 작품이 환생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건축보존의 테크닉으로 재사용(Adaptive Reuse)에 의해 과거 건물의 구성을 최대한 많이 변경시킨 예들이다. 잊힌 건축사의 작품은 귀환하면서 새로운 작업에 의해 자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버려진 고목에서 꽃이 핀 것처럼, 절름발이였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새로운 건축의 보철(Prothesis)이 두 발 똑바로 걷고 있는 모습이다.

'연결될 미래'는 건축 인프라(Architectural Infrastructure)를 도시 유형문화의 핵심에 놓고자 한다. 60년대 말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 고층 사무실, 대형병원 등은 70년대 이후 돌격건설의 시대를 훨씬 앞선 메가 스트럭처(Mega Structure)를 보여준다. 서양으로 보면 후기근대주의(Late Modernism)의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근대 전성기의 시대다. 생소한 큰 덩치의 건물들이 생기면서 한국의 건축이 발전해가는 시기로, 지금의 중견건축사들이 당시의 대가들 밑에서 수련하며 만든 결과다. 대표적인 건물이 서울 중구에 있는 세운상가다. 최근에 서울시 총괄건축가 승효상 씨가 남산으로부터 종묘를 잇는 보행자 공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곳으로, 설계자인 김수근의 원래 의도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세운상가의 재개발은 주변 동네를 남북과 동서로 이으며, 지역주민의 역사감(歷史感) 넘치는 생활의 느낌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방문하고픈 보행로로 역할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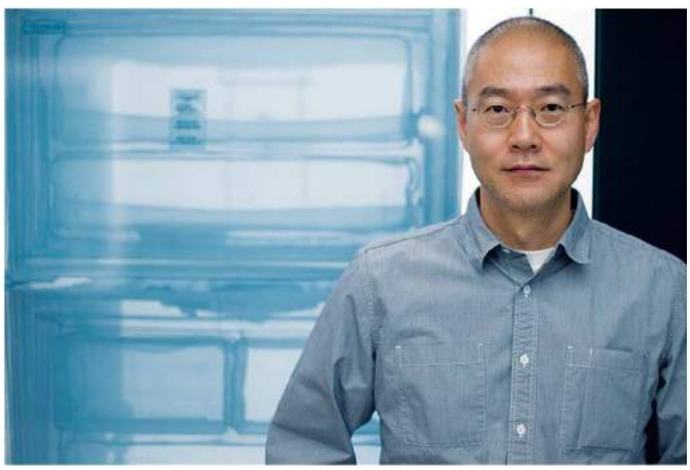
<충돌과 확장>展은 재생과 창조를 주제로 시의적절하다. 2014년 현재 서울시는 건축적 재생을 통한 마을만들기와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유지, 보수, 재사용은 무슨 의미일까? 삐딱하게 본다면, 현재 복원 및 재생을 추종하는 현상은 윤리를 넘어서 미학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 작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글에서도 그녀도 옛 건물의 필요를 단순히 시간의 미학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비전문가로서 느낀 부분이다(그녀는 역사이론가나 도시건축 전문가는 아니고 사회운동가 또는 작가였다). 재생과 복원, 재사용은 유행이 되었을 때나 원래의 형태를 고증만 할 때, 의미 파악 내지는 진실한 역사감 형성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생과 적절한 창조의 결합이 답인가? 일견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용도와 현재의 사용이 시간적 충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껍데기 미학일 뿐이다. 그 시간적 충돌을 통해 건축이 건드려야 할 것이 역사감이다. 온고지신하며 새롭게 변모하려 한다면 어떤 역사감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건축은 현실을 충만한 역사감으로 채우는 뇌관이 될 것이다.

글. 전영백_ Chun, Young-paik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미술사학과) 정교수

건축을 위한 미술의 제안 : 현대 작가(Contemporary Artist) 6人의 '건축적' 미술작업

6. 서 도 호(Do Ho Suh)



도1) 서도호(Do Ho Suh, 1962 ~)

서도호(1962~)(도 1)는 시대의 화두를 잘 잡아 낸 작가다. 우리 시대의 문화 정체성의 문제를 개인적 언어로 시각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한국적 美의 표현에 나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성과 세계화를 연결시키면서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세계무대에 제대로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서도호의 작업은 지나치게 토속적이지 않으면서 한국인의 주체적 입장을 당당하게 제시한다.

그는 서울과 뉴욕, 그리고 런던 등 몇 도시를 오가며 그 공간의 체험을 건축적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작가이다. 동양화를 중심으로 회화를 섭렵하고, 이후 조소로 확장하여 건축설치에 이른다. 1997년부터 뉴욕 화단에 작업을 선보이기 시작한 그는 2000년에 뉴욕의 리먼 모핀(Lehmann Maupin)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및 한국관 작가로 초대, 2002년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및 시애틀 미술관 순회전, 그리고 2003년엔 이스탄불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그는 이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들어 있다.

그의 작업은 대표 작업으로 집단 속 개인의 문제를 다룬 작업이 국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영국 리즈 대학교(Univ. of Leeds)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 이래 영국(런던) 학술지 'Journal of Visual Culture'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해외출판(Blackwell, Routledge 등)에 주력해 왔다. 『세잔의 사과』(문광부선정 우수학술도서)와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자화상』 등 10권의 저서와 17편의 논문을 출판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HoMA 관장, 동아시아 예술문화연구소 소장,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제적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주체와 공간의 관계를 문화비교 및 기억의 영역에서 다룬 건축적 설치가 돋보인다. 후자의 예로, 자신이 살았던 한국 전통가옥의 구조를 반투명한 천으로 재현한 작품(1999), 작가의 뉴욕 작업실을 재구성해 놓은 설치물(2003) 등은 집을 소재로 주체가 겪는 문화 이동의 체험을 다루었다.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불명확한 공간을 시각화하며, 서구와 동양,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분법적 진부함을 벗어나고자 했다. 여행가방처럼 접어 이동할 수 있는 이 작품들은 정착된 뿌리보다는 기동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현대인의 정체성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서도호의 작업은 우리 시대의 화두인 이산(離散)이나 유목주의를 다루되 그 부담스런 무게를 덜어내고, 긍정적이며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1)]

사적 공간의 공적 전시: '집(home)'-몸이 기억하는 가장 친숙한 공간

도2)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Home Within Home Within Home Within Home Within Home≫,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전경, 서울(Installation view: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November 12, 2013 – May 11, 2014)

한국 미술에서 서도호의 중요성은 2013년 11월에 개관한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2)]의 역사적인 개관을 기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작가로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전시 공간 중심에 위치한 서울 박스(Seoul Box)에 밝은 청색의 반투명한 천으로 정교히 제작된 그의 건축적 설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Home Within Home Within Home Within Home Within Home)>(2013)이 놓였다.(도 2) 그리고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생존하는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가진 작가가 서도호이다. 전시 제목은 서울 박스의 설치와 유사하게도 <집 속의 집(Home Within Home)>(도 3). 천으로 만든 주거 공간으로 작가가 이제까지 직접 살았던 집들이 서울로 돌아와 한꺼번에 설치되는 구성이니 세간의 주목을 끌 만한 전시였다. 작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다섯 채의 집을 천으로 만든 작업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 했다. '사적' 공간을 제도적 공간 속에 삽입하는 것이 전시의 주제라 할 수 있다. 그의 말마따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가정집이 미술관이라는 집단적, 공적, 제도적인 공간과 대화를 나누는 셈"이다.

도3) ≪서도호: 집 속의 집 DO HO SUH: Home Within Home≫, 리움 미술관 전시전경, 서울 (Installation view: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March 22, 2012 – June 03, 2013)

리움 미술관의 블랙박스는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디자인한 전시 공간이다. 쿨하스는 리움의 블랙박스를 '조각적 공간' 또는 '건축적 조각'이라 말했는데, 자신의 건물 안에 이질적 요소를 삽입한 구조이다. 블랙박스는 '건물 안의 건물'이다.(도 4) 서도호는 이 전시 공간과 자신의 공간작업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 제목이 '집 속의 집(Home Within Home)'인 만큼, 쿨하스가 지은 집 안에 서도호의 집이 들어가는 설정이다.

도4) 렘 쿨하스(Rem Koolhass)가 설계한 리움 건축물 속에 전시된 서도호의 <투영 Reflection>, 2011, 폴리에스터 천, 금속 틀(Polyester fabric, metal armature), 두 개의 문: 211x101x653cm

1) 전영백, 「잊히지 않을 미술작가, 잊을 수 없는 건물 [3] 서도호」, 『조선일보』, 2008. 1. 22 일자.
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조선시대 국왕들의 친인척 사무를 담당했던 전통 한옥인 종친부, 1913년 일본군 수도육군병원으로 지어져 1970년대 이후 보안사령부로 사용되었던 건물(붉은 벽돌건물), 그리고 현대식 건물(테라코타와 유리벽으로 된 건물) 등 다양한 건물들로 구성돼 있다.

도4) 서도호, <투영>, 2011, 디테일, 리움 미술관, 서울(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공간에 대해 새삼 음미하게 한다. 그의 작품이 단지 렘 쿨하스 디자인의 물리적 부분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건축적 공간이란 순전히 고정된 시각으로 보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심리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쿨하스 속의 서도호를 보며, 또 그 집 속의 집을 보면서 관람자는 몸의 기억이 오버랩되는 것을 실감한다. 서도호의 반투명 천 집의 겹치는 구조처럼.

공간은 몸의 기억과 직결된다. 그리고 몸이 겪는 감각적 경험이 가장 많이 배어있는 곳이 집이다. 집이란 몸의 촉각이 공간을 기억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곳이다. 서도호의 집 작업은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한 향수가 깃들여 있다. 이러한 '향수'의 대상인 집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현대인에게 집이 과연 그렇게 안락한 공간인가? '현대성(modernity)'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그 조건을 소외와 고립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주체가 체감하는 공간과 직결시켜 설명했다. 대도시를 사는 현대주체는 그렇듯 소외와 고립을 집에서조차 느낀다고 말해진다. 공간의 체험은 몸의 기억과 직결된다. 오늘날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가장 친근한 공간인 집에 대한 기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3)]

다문화주의 및 탈국가주의, 그리고 이주(移住)와 노마드를 친숙하게 이야기하는 요즈음, 그의 '이동하는 집' 작업이 가진 시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작가 스스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이를 체화한 작업이고 특히 공간에 대한 개인적 기억과 직결돼 있는 것이다.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집의 의미를 짚어보게 한다.

다른 문화의 체험을 건축적 설치로

앞에서 언급한 리움에 전시된 <별똥별 1/5(Fallen Star 1/5)>(2011)(도5)은 집 안의 모든 물건들의 디테일까지 보여주는 건축 모형이다. 충돌된 아파트와 한옥의 구조 내부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인데, 이는 이주로 인한 주체의 집에 대한 기억을 다룬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공간의 기억은 실제 작가가 살았던 집에 관한 것이기에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과거의 성북동 한옥이 뉴잉글랜드 아파트와 충돌하며 만든

도5) 서도호, <별똥별 - 1/5 Fallen Star - 1/5>, 2011, 혼합 매체(Mixed media), 762x368.3x332.7cm, 리움 미술관, 서울((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3) "발터 벤야민이 모더니티의 조건으로 소외와 고립을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공간적 변화에서 근거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공간과의 유기적 관계가 절연되었을 때, 집 또는 고향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나, 가장 익숙해야 하는 그 곳이 낯설게 느껴진다. 이 때 주체는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 느낀다. 안토니 비들러는 그 공포감을 없애줄 과거의 장소를 상상하고 욕망하는 향수병이 근대인의 전염병이라고 했다." 향수병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실제로 지리적 고향을 떠난 자들의 그리움이 아니라 현대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는 사회학적 문제로 인한 심리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Cambridge: The MIT Press, 1992), p. 178; 우정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집」, 『서도호: 집속의 집 *Home Within Home*』 전시도록(서울: 리움 삼성미술관, 2012), p. 147에서 재인용).

기이한 건축 공간은 바로 작가가 체험한 두 문화의 갈등을 나타내며 이질적 기억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시대와 지역이 달라 실제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공간은 주체의 기억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이중 기억인 셈이다. 그리고 그 구조가 떼려야 뗄 수 없이 된 것처럼 과거와 현재는 연결돼 있다.

도6) 서도호, <청사진 Blueprint>, 2010, 반투명 나일론(translucent nylon), 1376.7 x 670.6 x 275.5cm, 건축 비엔날레 설치 전경, 베니스(Installation view: Architecture Biennale, Venice)

서도호는 2010년 국제 건축전에 출품하기도 했다. 카즈요 세지마(Kazuyo Sejima) 가 전시감독이었던 12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였다. 그의 작품 <청사진(Blueprint)>(2010)(도 6)은 건축가인 자신의 동생 서을호(Eulho Suh)와의 협업이었다. 손바느질로 지은 서도호의 반투명 천 집은 철사 구조에 의해 천장과 벽에 수평으로 매달고 바닥에 배치한 연계 작업이다. 서로 다른 세 유형의 집들의 전면이 함께 설치돼 있는데, 서도호가 실제 살았던 한옥과 뉴욕의 타운하우스, 그리고 전형적인 베니스 빌라의 전면을 볼 수 있다. 집을 실제 크기와 똑같이 복제하여 나일론 천으로 일일이 손으로 바느질하여 만든 건축적 설치이다. 이같이 건축 전시에 직접 출품한 미술작가는 찾기 힘들다. 이 전시는 서도호가 건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미술가임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건축의 '픽션(fiction)'

만약,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주인공 도로시의 하늘을 나는 집처럼, '건물이 다른 곳으로 날라 간다면?' 엉뚱한 발상이다. 그런데, 가끔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할 줄 아는 존재가 예술가다. 상상이야 자유라지만, 관건은 그렇듯 뜬금없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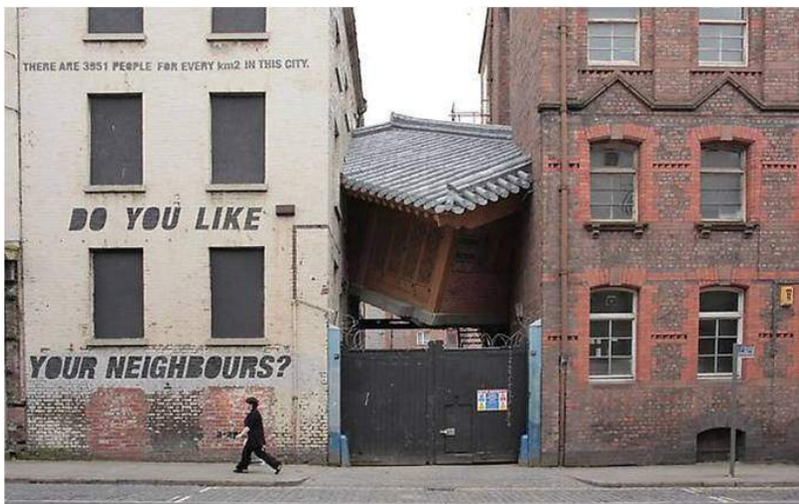
서도호는 2000년대 후반, '한 문화의 건축물이 날라 다른 문화의 건축물에 가서 박힌다면?'이란 구상을 했다. 이 생각은 상당히 체험적인 것이었는데, 서울의 전통 한옥에서 살아 한국문화를 체화한 성인 작가가 뉴욕으로 이주하여 완전히 새로운 미국식 건물에 살면서 서구문화에 적응한 작가자신의 경험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 건축의 픽션은 그의 별똥별 연작에서 구체화된다. 이 연작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변모했지만, 공통의 스토리를 지닌다. 그것은 작가의 서울집이 날아올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집과 충돌해 박힌다는 내용이다. 그가 살고 있던 서울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온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아파트 건물에 박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흔한 게 요즘이다. 이제는 상당 수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살면서 문화 충격과 그에 따른 조정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을 체험하는 것이다. 서도호는 이 상황을 공간에 대한 기억과 체험으로 풀어냈고,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집과 미국의 집 사이의 충돌과 연계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별똥별 1/5>은 그의 별똥별 연작 중 하나로 그 스토리대로 작가의 성북동 한옥의 모형이 뉴잉글랜드 아파트 모퉁이에 날아와 박힌 형태였다.

이렇듯 '하늘에서 날아온 한옥'이란 픽션을 가장 실제적으로 구현한 작업이 리버풀 비엔날레의 <연결하는 집(Brigding Home)>(2010)(도 7)이었다. 이 작업은 노마드적 특징과 더불어 집을 개입시켰다는 점에서 '장소 관계적'이다. 그의 작업 주제는 자신의 집과 다른 도시의 특정 지역 사이의 문화적 충돌, 만남, 혹은 상생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리버풀 비엔날레에 선보인 <연결하는 집>은 한옥이 리버풀 듀크 거리 84-86번지에 자리잡은 영국의 두 집 사이에 끼어 들어간 설치작이다. 이는 그의 대표작인 <별똥별 1/5>의 '장소특정 판(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관람자 입장에서 받은 시각적 충격이 큰 것은 그 집이 낀 상태가 하늘에서 추락한 것처럼 뿐 아니라, 작가가 "한국의 조각(a piece of Korea)을 물리적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리버풀의 관람자에게 서도호의 작업이 언캐니(uncanny)한 것은 한국의 옛집이, 타문화의 장소특정적 건축물이 자문화의 장소

도7) 서도호, <연결하는 집 Bridging Home>, 2010, 리버풀 비엔날레, 리버풀(Liverpool Biennial, Liverpool)



로 이동해있다는 점이었다. 이 작품은 작업의 오브제가 장소특정적이지만 이것이 이동하여 전혀 다른 장소에 안착되면서 두 장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역사적 전통을 상징하는 한옥이 현재시점의 리버풀 내에 구체적 지역과 접붙여짐으로써, 특정한 장소인 서울과 리버풀이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장소적 관계'를 만든 것이다.

요컨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합해 드러내는 관계적 의미는 각 문화가 갖는 개별적 장소특정적 의미에 비할 수 없이 풍부하다. 비록 그것이 대리석 기둥과 나무판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어긋남과 차이일지라도, 그 '간극'을 그대로 대면하고 수용할 때 문화적 차이는 인정되는 것이다. 즉 불공정하지 않은 구조에서 그 개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서도호가 서울의 전통가옥을 리버풀에 가져다 거칠게 끼워 박은 중요한 의미라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소통되지 않고, 나이브하게 보일 지라도 그 불통과 부조합이 바로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대면해야하는 가장 불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4)]

도7) 서도호, <연결하는 집 Bridging Home>, 2010, 디테일, 리버풀 비엔날레, 리버풀(Liverpool Biennial, Liverpool)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문화 기억'을 작품으로

1970년대는 한국의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던 시대였다. 이러한 건설 열풍 속에 서도호의 성북동 한옥이 완성되었다. 80년대까지 이어진 급작스런 도시 개발과 소위 현대적 '발전'으로 한옥보다 양옥이 선호되었고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기존의 한옥을 대치했다. 그런 의미에서 단아한 서도호의 옛집은 한국인들에게 향수를 자아내는 대상이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단편적이고 그나마 시각적일 뿐, 체험적이지 않다. 한옥에 실제로 살아보았던 이가 얼마나 되나? 문화적 축복을 받은 소수이다. 서도호가 어린 시절 살아본 한옥은 그의 부친인 서세옥화백이 성북동에 창덕궁의 연경당 사랑채를 본떠지은 전통 가옥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살려 작품으로 만들었기에 그는 세계적으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예컨대, 그의 천 집이 연출하는 은은한 조명 효과는 한옥의 매력 중 뺄 수 없는 부분이다. 한옥은 거주자로 하여금 공간을 안팎으로 명확히 구분치 않고 자연스레 넘나들게 한다. 공간에 대한 지각 방식은 서양의 건물에서 느낄 수 없는 한옥만의 특징이다. 작가는 이를 체험적으로 알았던 게고, 그의 집이 반투명한 천을 십분 활용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반투명 천은 한지와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한 천이 겹치며 만들어 내는 미묘한 공간의 효과는 한지로 만든 한옥의 창과 문을 닮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문화의 기억을 놀랄 정도로 섬세하게 바느질하여 구체화한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란 본래 만져질 수 없는 법. 작가가 집을 천이란 재료로 제작한 것은 이런 비물질적인 기억을 물화(物化) 혹은 구체화하는 데 무척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천의 비결정성과 투과성, 그리고 유동성이 기억의 속성과 가장 닮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서도호가 이렇듯 천을 갖고 옷을 짓듯, 집을 짓는 과정은 기억의 매커니즘을 의도적으로 재연한 듯 보인다. 그는 여러 문화에서 거주했던 집들 – 뉴욕의 스튜디오, 서울집, 뉴잉글랜드의 집, 베를린의 집 등 – 내부의 온갖 디테일들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손바느질 했다. 그러한 조심스런 처리는 그가 단순히 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특정한 집을 떠난 후에야 그 집을 짓는다고 했다. 다시 말해,

4) 전영백, 「여행하는 작가 주체와 '장소성': 경계넘기 작업의 한국작가들을 위한 이론적 모색」, 『미술사학보』 제41집, 2013년 12월, p. 189.

5) 데리다의 '차연(différance)'의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데리다 해체주의의 차연이란, '다르다(to differ)' – 본성, 질, 혹은 형태에서 같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다 – 와, '연기하다(to defer)' – 미루다, 연기하다 – 를 의미한다(사실 프랑스어 동사인 différer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 데리다는 차연(différance)의 의미 속에 연기(deferring)의 의미를 집어넣는다. 차연은 그 자체가 무한히 연기되는 것이다." –마단 사럽, 전영백 옮김,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서울하우스, 2005), pp. 79–80.

그의 집은 언제나 연기(延期)되어 출현한다.[5] 집을 만들 때 작가는 말한다: "[...] 그 집의 공간을 내 머릿속에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남는 찌꺼기가 천 작업인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자유롭게 훌쩍 떠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서울 집은 그 곳을 떠난 후에야 가능한 작업이고, 그의 뉴욕 작업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때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공간의 재현은 언제나 뒤늦게 일어난다. 즉 주체가 그 공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가능하단 뜻이다. 공간의 기억이란 부재를 담보로 한다는 역설을 깨닫는다. 그러기에 장소의 재현은 시간상 연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리고 이러한 섬세한 과정을 잘 드러내는데 반투명 천을 쓴 이유를 작가의 말에서 확인한다: "결국 천이란 상실과 부재, 무(Nothingness)를 다룰 수 있는 재료, 물질적으로 가장 미니멀한 재료였다."

다른 문화의 체험: '충돌(collision)'이냐 '연착륙(smooth landing)'이냐

다른 문화의 체험을 '이동하는 집'으로 표현하는 서도호의 작업이 두 다른 문화들끼리의 격렬한 충돌인가, 아니면 타문화의 연착륙을 나타낸 것인가를 명확히 말하기란 어렵다.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사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적응이란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고 또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리버풀 비엔날레의 충격적 설치작업을 충격적인 문화 충돌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순간의 충돌은 지엽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전면적 관계맺기로 인한 상호 연계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도8) 서도호, <낙하산병 I Paratrooper I>, 2003, 리넨, 폴리에스터, 콘크리트, 플라스틱 혼합재료 (Linen, polyester fabric, concrete, plastic and mixed material)

그러나 적어도 그의 천으로 지은 집 작업은 이주와 정주 사이의 충돌과 대립이라기보다 타문화의 연착륙이라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작가의 초기작인 낙하산 작업(도 8)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작업을 '전치(displacement)'로 설명하곤 하는데, 전치의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낙하산 병사와 낙하산이다. 새로운 환경에 떨어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낙하산 병사처럼 작가는 새로운 문화에의 연착륙을 구상했다. 그리고 그 낙하산이 결국 천 작업이 됐다고 한다. 작가는 회고한다: "상징적으로는 천으로 된 집을 만들면서 크기를 재고 만들었던 과정이, 전혀 다른 문화에서 충돌하지 않고 무던히 'Work Through'하면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생각할 때 밖에서 보면 '충돌'이고, 안에서 직접 겪는 주체의 입장에선 '연착륙'이 아니겠는가.

'노마드 집': 집은 반드시 고정될 필요는 없다

<서울 집/L.A. 집>(1999)(도 9)은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에서 선보인 후, 현재는 LA 현대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이다. 작업 자체는 정주되었지만, 제목은 여전히 열린 채 여행을 계속한다. 말하자면, 작품이 옮겨지는 새로운 장소의 지명을 계속 덧붙이도록 작가와 계약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 본래의 <서울집/L.A.집>은 현재 <서울/L.A.집/볼티모어 집/ 런던 집/ 시애틀 집/ >으로 길어져 있지만, 다른 도시로 전시될수록 더 늘어나도록 돼 있다. 호평을 받았던 이 작업은 작가의 성북동

도9) 서도호, <서울집/L.A.집 Seoul Home/L.A. Home> 1999, 실크(Silk), 149 x 240 x 240 inches, LA 현대미술관 소장(Collection of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집을 옥색 한복 천(은조사)으로 정교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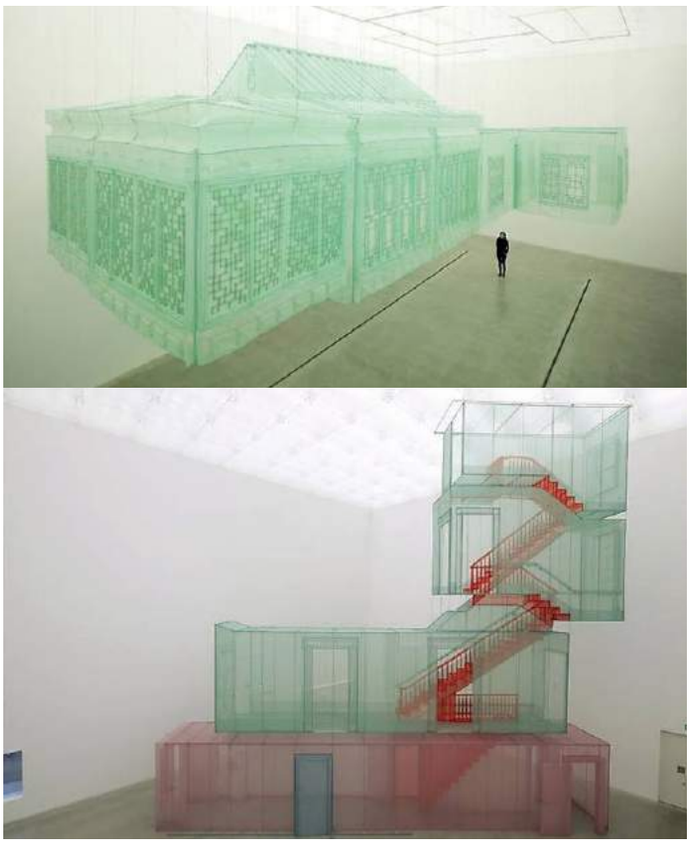
미술사학자 자넷 크라이낙(Janet Kraynak)은 서도호의 집이 정치철학자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의 저서 『제국』에서 논의한 '비(非)장소'의 적절한 예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가능하고, 어느 특정한 곳에 자리잡지 않지만, 아무데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6] 사실상, 서도호의 집은 지정학적 집을 벗어나 개념적 집을 구현시키고 있다.

그것이 지정학적이든 개념적이든 서도호의 집은 떠도는 집이다. 작품이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지닌다. 그런데 집이 계속적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이 더이상 집인가? 이렇듯 자체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작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해야 하는가? 그의 경우는 "집이란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 언제나 반복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집이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환상'이라 보았다. 집이란 결국 '마음의 고향'인 거란다.

그러나 제아무리 서양문화에 '연착륙'한 사람이라 해서 집에 대한 그리움이나 상실감, 혹은 향수가 없었을 리 없다. 누구나 집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리라. 그러나 오늘날처럼 여행이 일상화되고 여러 도시를 사는 생활방식이 익숙해진 시대에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건 확연하다. 그래서 작가의 노마딕한 언급이 십분 동감되기도 한다. 그는 "집이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거쳐가는 수많은 공간이자, 단선적인 움직임 속에 연결된 수많은 장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도호는 <서울 집/L.A. 집>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를, 처음엔 <서울 집>을 만들어서 L.A.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는 뉴욕의 아파트를 천으로 만들어서 서울에서 전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 제작된 다양한 그의 천 집들에 대한 근본 구조를 제공했다. 모두 새로운 환경에 작가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한 미술적 행동이었음을 그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7]

정주가 아닌 이주를 집의 기반으로 여기는 작가를 단순히 '노마드(nomad)'라고 부르기엔 그의 문화기반인 아시아적 요소가 발견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긴 여정이자 목적지 없이 그저 통과하는 공간들일 뿐"이라는 작가의 말과 "과도적인 공간들"에 대한 그의 관심에는 아무래도 불교적 뉘앙스가 있다. 작가 스스로도 인정했듯, 한국인이기에 몸에 배인 불교적 사고방식을 집착을 벗어난 그의 유동적 집 작업에서 확인한다.



도10) ≪서도호: 완벽한 집 Do Ho Suh: Perfect Home≫,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전시전경, 일본 (Installation view: 21st Century Museum, Kanazawa, Japan,November 23, 2012 – March 17, 2013)

작품 전시의 공간이 서도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강조하였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개인전《완벽한 집(Perfect Home)》(2012-2013) (도 10)은 위에서 언급한 맥락에서 그 제목을 이해할 듯하다. 이동하여 바뀐 작품의 전시공간은 집에 대한 새로운 맥락을 제공하고, 이렇듯 끊임없이 움직이는 집, 그래서 정주하지 않는 '이주의 집'이야 말로 마음 속에서만 정주하게 되는 완벽한 집이 아니겠는가.

6) "정치철학자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가 공동집필한 유명저서 <제국>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문화, 자본, 기술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할 지 모르지만, 이전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착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기반한 체제이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영토에 국한되었던 반면, 세계화의 '제국'은 하트와 네그리가 기술한 것처럼 "탈영토화"되었고 탈중심화되었다. 이 '제국'은 위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장소"이며 그것과 대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저자에 따르면 세계화의 치명적인 영향에 저항하는 유일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제국'과 유사한, 동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비장소'로서의 대항-제국을 구축하는 것이다." (Janet Kraynak, 'Homecoming: Do-Ho Suh takes up residence at Lehmann Maupin', *Time Out New York*, July, 2003; 『서도호: 집속의 집 *Home Within Home*』 전시도록(서울: 리움 삼성미술관, 2012)에 재수록, p. 106 참조).

7) 작가는 말한다: "<서울 집/L.A. 집> 이후로도 나는 내가 살던 집들을 계속해서 천으로 만들고 어떤 형식으로든 작품화하는 데 구조적으로 처음 <서울 집>을 만들었을 때와 다를 게 없다. 전부 새로운 환경에 나를 적응시키기 위한 제스처라는 점에서 말이다."

미적 배경

서도호는 자신의 교육적 배경, 문화적 체험을 십분 활용한 작가인데, 동양화와 디자인 그리고 조각을 배우며 다양한 표현언어를 갖춘 것이 장점이다. 그는 80년대 중후반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 전공으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회화 전공 후, 예일대학에서 조소 전공으로 석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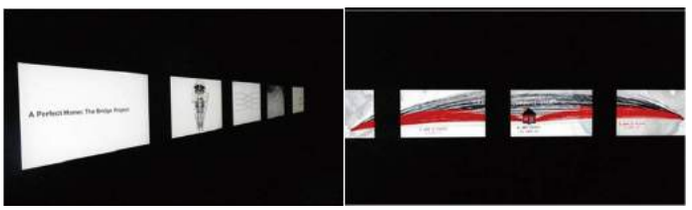
작가의 초기작은 건축적 공간 작업이라기보다 개인과 다수(사회)를 다룬 설치작들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군상 작업은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에서 소개된 <공인들(Public Figure)>(1999)(도 11)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도 궁극적으로 개인적 공간과 그 크기와 의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작가는 "집과 공간, 유니폼 같은 옷이나 군상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 대해 탐구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건축이나 군상작업 모두 마찬가지의 공간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11) 서도호, <공인들 Public Figures>, 1999, 유리섬유 강화 수지, 강철 파이프, 파이프 이음새 (fiberglass/resin, steel pipes, pipe fittings), 304.8 x 213.4 x 274.3cm, 메트로테크센터공원 설치 모습, 브루클린(Installation view: Metro Tech Center, Brooklyn, NY)

나가며

요즈음 미술과 건축은 문화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문화적 차이를 국가주의(nationalism)의 구별과 경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관계와 소통, 그리고 교섭의 계기로 여긴다.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은 새로운 말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 정체성과 예술적 차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모더니즘의 덫에 걸리지 않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경계넘기 작업에 몰두하는 오늘날 한국작가들에게 '여행하는 작가 주체(Artist Traveller)'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 문화 정체성과 글로벌 소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논술한 바 있다.[8)]

필자가 제시하는 것이 '여행 주체'이다. 이는 노마드와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노마드는 이동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행주체는 이동성 뿐 아니라 장소와 밀착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박지(집)와 여행지 사이의 물리적 관계 즉, '거리'를 언제나 인식하기 때문에 개념상의 장소가 이미 관계적이다. 이 때 장소간의 관계성은 주체의 입장이 장소에 투사, 연계하여 이들이 피상적으로 결합하고 축적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소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장소(정박지: 正)와 장소(여행지: 反)가 내용적으로 관계를 맺어 새로운 장소성(合)을 이루는 것이다.



도12) 서도호, <완벽한 집: 다리 프로젝트 A Perfect Home: The Bridge Project>, 2012, 영상작품 (작가가 추구하는 완벽한 집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상의 계획을 다루는 프로젝트이다. 6채널로 이루어진 이 영상 작품은 다리를 짓기 위한 드로잉과 건축적인 데이터들로 채워지는데,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작업하던 서도호는 두 도시를 잇는 다리를 만드는 계획을 상상한다.)

이러한 구조는 여행 주체로 하여금 장소와 체험적으로 관여하면서도 그와 적정한 거리를 둘 수 있게 한다. 이 점은 이러한 여행주체의 장소기반 작업이 작가중심의 모더니스트 주체로 귀환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요즈음 거의 많은 작업이 노마드류의 작업이나, 이 중 이렇듯 장소와 장소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작업으로 체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9)] 그리고 이러한 여행 주체가 실행하는 '관계적 수행(relative performing)'이야말로 작가의 주체성과 지역이 갖는 장소 특정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하는 중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도호의 작업들 중, 별똥별 연작을 위시한 최근의 <완벽한 집: 다리 프로젝트 (A Perfect Home: The Bridge Project)>(2012)(도 12)는 이러한 '관계적 수행'을 엿볼 수 있는 작업들이라 생각한다.

8) 전영백, 「여행하는 작가 주체와 '장소성': 경계넘기 작업의 한국작가들을 위한 이론적 모색」 참조
9) 그러한 드문 사례들 중, 뉴욕 출신으로 뉴욕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를 오가는 작가 혼(Roni Horn)의 경우는 장소와 체험적으로 관여하면서도 그와 적정한 거리를 두는 '여행 주체'로서의 속성을 적절히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문, pp. 181-182 참조)

글. 이관석_ Lee, Kwan-seok
경희대학교 교수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건축 전공자라면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대해 조금씩은 안다. 현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은 어느 건축사 못지않게 자세히 소개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르코르뷔지에를 주목하는 것은 사회·예술·문화 전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거침없이 더듬은 그의 예민한 촉수가 여전히 수많은 향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듬어 따라가 각각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안도할라치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생명력 앞에서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진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 이은 이번 르코르뷔지에 연재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서 약간 다른 면이나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면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 간 학술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살폈던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일선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접하기 쉽지 않은 건축사분들에게 르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자세가 어떠했는지, 다소 엉뚱하지만 직접 건축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그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을지, 불황 때문에 일거리라곤 없다시피 했던 10여 년의 무시무시한 공백기를 그가 어떻게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는지, 스치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꾼 그의 인연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프랑스건축사 학위를, 파리1대학교에서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2004)와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2011) 등의 저서를 비롯해 역서 <건축을 향하여>(2002), <프레시지옹>(2004), <오늘날의 장식예술>(2007) 등 십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연재 목차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3.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下)
4. 르코르뷔지에의 '지속연구'
5.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下)

<건축과 기술 및 정신성에 관하여>

우리는 지난 연재 글에서부터 건축교육을 직접 담당한 적이 없었던 르코르뷔지에가 그럼에도 그의 저서들과 작품, 강연 등을 통해 학습해야 할 것으로 젊은이들에게 권고한, 새로운 건축에 합당한 가르침과 배움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교육내용이 갖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생각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1929년에 발행된 그의 저서 『프레시지옹』과 1943년에 발행된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 표출된 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주안점을 요약한 〈표1〉을 뼈대로 삼아 시간의 연속성 상에 위치한 건축의 올바른 자세와 건축의 기본에 관해 먼저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건축과 기술 및 정신과 관련해 건축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생각을 들여다보자.

〈표1〉 건축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주안점

교육에서의 주안점		상세 내용
건축과 시간	현상 직시와 반성	시대정신이 결여된 과거의 무분별한 수용과 잘못된 교육, 유행 질타
	과거로부터의 교훈	전통, 토착성, 민속문화, 고전의 중요성 강조
건축의 기본	대지	하늘, 기후, 태양, 부지 등의 자연조건에서 나오는 건축
	내·외부 공간과 동선	근대적 공간성과 동선 중시
	주거	건축의 기본으로서의 주거 연구
건축과 기술	구조와 재료	(정)역학을 포함한 구조 및 재료
	건축 환경	소음, 단열, 팽창, 냉난방 등
건축과 정신	정신적 측면	의도, 조화와 비례
	생각과 표현	스케일, 색채와 글쓰기/스케치

건축과 기술

(1) 기술을 보는 시각

시대정신에 민감해야 하는 건축사로서 르코르뷔지에는 에콜데보자르(Ecole des Beaux-Arts)에서 독점적으로 수행되던 당시 건축교육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기술에 대한 소홀과 그릇된 인식에 분개했다. 르코르뷔지에의 기술에 대한 태도는 처음 연재됐던 「르코르뷔지에와 기계」에 상당 부분 드러나 있어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그가 숙련된 기술이나 장치,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의미의 기계가 건축에게 보여준 커다란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여 본받고 전파하려 애쓰면서도 기계의 무조건적 수용을 경계하고, 이성과 감성의 아슬아슬한 평형점에서 작업하는 건축가로서 균형감각을 지켜나갔음을 그 글에서 확인했었다.

『프레시지옹』의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대를 연다」라는 장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르코르뷔지에는 기술을 계산과 실험실에서의 연구가 만들어낸 보편적 유산으로 여기면서도 또한 기계시대 생산품을 고귀한 시정을 지닌 현실주의적 사물로 생각했다. 인간과 주변 환경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기술로부터 느끼는 그의 시정(詩情) 감지는 유별났다. "시는 언어나 쓰인 단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事實)의 시는 더욱 강렬하다. 뭔가를 상징하고 재능에 의해 준비된 대상은 시적인 사실을 창조한다."[1]는 그의 언급은 그가 자연계의 객관적 현상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 주도면밀하게 의도된 대상에서 강렬히 느낀 시정을 토로한 것이다. 기술이 분명 이성과 합리의 산물임에도 건축에게 단순히 효율성이나 경제성, 또는 성능 향상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적시한 셈이다.

이와 같이 기술이 보여주는 외면적 현상뿐만 아니라 기술에

1)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53쪽.

내재된 덕목에 주목함으로써 기술의 본질적 측면을 함께 조명하며 그는 학생들에게 이전의 수공업적 건축에서 벗어나기를 권유했다. 1920년대의 저서들에서 르코르뷔지에는 대량생산, 합리화, 기계시대의 도래로 인한 산업화, 비행기나 선박 또는 자동차가 주는 교훈, 요구에 응하는 유형으로서의 가구, 정신의 개혁을 수행하는 근대 현상인 기계가 주는 교훈을 거듭 거론했다. 원인과 결과의 순수한 관계이자 순수성, 경제성, 지혜를 향한 집중인 기계가 보여 주는 순수의 미학, 정확성의 미학, 표현 관계의 미학에 대한 찬탄과 시적 감흥의 기반으로 격상한 기술이 건축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시대정신의 자각에서 비롯된 새로운 건축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매우 중시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르코르뷔지에에게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끊임없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표준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발달돼야 하는 숙명을 지녔다. 기술은 늘 극심한 경쟁 속에 있으며 연구를 통한 진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평생을 통해 자신의 건축 작품을 반복해석해 봄으로써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각을 진보의 밑거름으로 삼은 르코르뷔지에에게 기술의 분투는 자신을 포함한 건축가의 각성을 촉구하는 촉매제로서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되기를 바랐다.

(2) 구조, 재료 및 건축 환경

당시 건축학교에서는 홀대받았던 기술을, 그나마 정규 건축교육을 받지 않은 르코르뷔지에는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경험으로 그는 『프레시지옹』에서 실제 시공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철근콘크리트를 만드는지, 테라스와 바닥판을 만들고 창을 설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스케치도 하며, 정역학과 관성 모멘트 같은 구조역학과 소음·단열·팽창 및 냉난방 같은 건축 환경을 이해할 것을,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건축 재료와 구조를 공부할 것을 학생들에게 권했다.

1917년에 파리에 정착한 르코르뷔지에는 당시 실용화의 전례조차 드물었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가르쳐 준 페레(A. Perret)로부터 정신을 육성하는 수학을 공부하도록 권유받았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구조의 불합리성을 감소시켜줄 중력의 법칙과 정역학 및 동역학을 공부할 필요를 느껴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면학했다. 과학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수학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아름답고 논리적이며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그가 간단한 기능의 기계들을 동역학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독학을 통해 얻은 안목 덕분이었다. 그는 이 지난했던 개인학습의 과정을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정식으로 다뤄주기를 원했다.

르코르뷔지에가 원한 구조역학에 대한 학생과 건축가의 지식은 물론 구조 전문가 수준은 아니다. 수학은 수학자들에게 맡기고 그 원리를 이해하여 건물의 작동방법 등을 알기를 바랐음을 그가 구조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다. 구조 체계와 조형 체계 모두에서 완벽하게 충족되어 완전한 전체를 형성하는 건축에서 그는 충실한 구조 시스템이 평면과 단면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질서체계에 속한다고 여겼다. 구조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건축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로 구조를 생각한 것이다.

그는, 건축의 생성원(生成元, générateur)으로서 어떤 느낌을 자극하는 본질적인 힘을 가졌으며 그것이 없으면 무질서와 자의성만 있다며 중시한 평면이 처음부터 구조방식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건축가는 무엇보다 엔지니어라고 말했다. 철근콘크리트에 대한 조형적 체계 연구가 우리를 현재로 데리고 온다고도 했다. 구조 체계와 조형 체계가 함께 탐구돼야 할 건축의 특성임을 일깨운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구조를 특히 부각시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일부 움직임을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나는 학생들의 치기 정도로 폄하했다. 건축은 구조를 내보이거나 필요에 대응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은 감동적인 관계를 통해 정신적 숭고함의 상태, 수학적 질서, 사색 및 조화를 인식하게 하는 훌륭한 예술"[2]이라는 건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구조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조형 체계와 함께 해야 함을 적시했다.

르코르뷔지에는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재료에 대해 거론하며 1930년대 이후 자신의 건축에 도입했던 것처럼 지방의 전통재료나 자연적 재료가 주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대감, 소속감 같은 느낌 속에서 모든 건축이 솟아나는 은밀하고도 값진 원천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전통과 연계된 재료는, 재료이자 구조재인 철근콘크리트 사례처럼, 기술의 도움을 받아 향상된다. 그는 페레에게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배울 때 재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그는 "건축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감동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3]라는 정의로 건축에서 재료의 근원적 중요성을 인정했다.

2) 위의 책, 124~125쪽.
3) 위의 책, 161쪽.

하지만 당시의, 허영을 위한 마지막 방편이었던 아름다운 재료에 대한 과다한 애착 현상은 경고했다. 건축의 본질이 우리가 행하는 선택의 질과 정신력에 달려 있지, 값비싸거나 희귀한 재료에 달려 있지 않다고 여긴 그는 "아름다운 재료의 종교는 이제 고통의 마지막 경련"[4]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고급재료로 치장된 비싼 건물이 좋은 건물일 것이라는 선입관을 경계하고, 건축의 질은 다른 데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젊은 시절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을 연구할 때 감명 깊게 접했던, 이 운동의 주도자인 무테시우스(Hermann Muthesius)의 미학은 재료의 질에서 독립할 수 있다는 선언이 사실임을 그는 매우 거칠게 마감된 라투레트 수도원(1953~60) 같은 작품으로 실증했다.

라투레트 수도원 부속성당 내부, 르코르뷔지에, 에브쉬라르브르슬, 1953~60

이 외에도 르코르뷔지에는 『프레시지옹』에서 학생들에게 건축환경과 관련해 소음과 단열, 팽창과 냉난방의 문제를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서 많은 지식을 얻으면 나중에 이를 자축할 때가 오리라고도 했다. 이와 연관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프레시지옹』의 앞선 강연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다. 특히 27회나 언급된, 그의 주거에서부터 가로, 더 크게는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이면서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소음은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술과 관련해 늘 새로운 시도를 했던 르코르뷔지에는 쓰라린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다. 그가 처음 경험한 대규모 주택단지인 페삭(Pessac) 집합주거단지(Bordeaux, 1924~26)는 건축사가 제시한 신식 조립식 공법을 이해하지 못한 지역 건설업자의 무능함, 당국의 비협조로 인한 용수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급면적 축소 등 기술적·기능적·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다. 르코르뷔지에의 작품으로 보호되고 있기도 하겠지만 완공 후 9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의 변경을 거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주거단지에서 행해진 생소한 시도는 건설 부문에서 공업 생산, 기계화, 분업의 규범이 쉽게 바꾸지 않음을 확인시켜준다.

프뤼게 집합주거단지, 르코르뷔지에, 페삭, 1924~26

그는 겨울에서 영하 40°C까지 내려가는 모스크바에 상당부분 유리 커튼월로 마감되는 센트로소유즈(Centrosoyuz) 청사(1926~36)를 계획하면서 두 겹의 유리 또는 석재 사이에 18°C를 유지하는 공기를 불어넣어 건물 내부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도록 하는 '중화벽(murs neutralisants)'을 고안했지만, 완전히 밀폐된 채 과학적으로 제어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의 아이디어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는 파리의 구세군 빈민수용소(1929~33)에서도 이곳의 남측 파사드에 높이 16.5m 길이 57m의 실험적인 유리 커튼월을 제시하면서 당시 주로 미국의 극장이나 공공건물에 쓰였으나 주거용 건물에는 거의 적용된 적이 없었던, 환경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제어되는 개념을 내세웠지만 저예산의 건물에서 수용될 수 없었다. 기술의 생소함과 이에 따른 상세설계 능력 부족은 공기를 지연시켰다. 그는 자신의 매끈한 유리벽이 투명한 유리나 두꺼운 벽과 마찬가지로 단열효과가 있고 태양광선도 차단할 것임을 기대했지만, 실제 기술이나 한정된 예산은 그 꿈을 무산시켰다. 용도가 그런 만큼 준공식에 프랑스 대통령이 오기로 예정됐었는데 완공이 늦춰져 관계자들의 몸이 상당히 달아올랐을 것임을 어렵잖

4)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16쪽.

게 짐작할 수 있다.

구세군 빈민수용소, 르코르뷔지에, 파리, 1929~33

건물을 지면에서 띄워 올리는 필로티(pilotis)로 인해 손실된 1층의 면적을 옥상에서 보충하면서 햇볕과 전망을 누리고자 옥상정원을 주장한 르코르뷔지에는 옥상식목을 통해 지붕단열에도 도움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전반기 경력 대표작인 사부아 주택(Villa Savoye, 1929~31)의 경우처럼 당시 평지붕에서 옥상 방수기술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옥상 테라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팽창이 누수의 원인이 되는 균열을 일으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1920년대 방수재료의 성능과 시공 능력은 그의 꿈을 성취하기에 미흡했다. 그의 첫 순수주의 건축 작품인 보크레송 주택(Villa Vaucresson, 1922~23)이나 페삭 집합주거단지 내 일부 주택의 거주자들이 상자형 건물에 경사지붕을 씌우기까지 시공불량으로 인한 애로는 극심했다.

사부아 주택 테라스, 르코르뷔지에, 푸아시, 1929~31

그러나 그의 모험적인 도전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현실적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아방가르드의 고초를 피하지 않은 것이다. 건축이 가야할 방향으로 여겼으므로 그는 걸어갔고, 젊은이들도 그런 기개를 갖기를 바랐다. 교육도 당연히 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기술적 문제는 분명 건축가만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또한 여러 면을 감안해 공인된 기술만을 쓰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르코르뷔지에는 자신의 새로운 시도를 발전일로에 있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건축가의 과감한 적용을 통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독려했다.

건축과 정신성

(1) 건축에 내재된 의도

르코르뷔지에는 건축의 정신성을 학생들이 자각하기를 바랐다. 그는 건축이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 임을 『건축을 향하여』와 『프레시지옹』 등에서 거듭 환기시켰다. 장식된 석조건물의 육중한 물질성이 드러내는 과시에 몰두했던 당시에 건축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함을 학생들을 포함한 열린 마음들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건축을 깨달음을 얻은 의지력의 행위로 본 그는 아카데미즘에 물든 공식에 따라 건축을 하던 행태를 멈추고, 시대정신의 결과인 건축을 질서의 정신과 관계에 대한 감각 사이에서 통일성 있는 의도를 갖고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순수한 정신의 창조물이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작품의 통일성을 고취하는 것으로 작품에 본질적 자세 또는 어떤 특색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명확하게 표현돼야 하며, 만약 자연의 대상들이 살아 있고, 계산을 통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그 까닭은 그것들에 내재된 의도적인 통일성에 고무됐기 때문이므로 따라서 예술 작품에는 일관되게 추진하는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르코르뷔지에는 이 의도가 건축사가 수행한 배치와 평면에서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에게 배치는 중요도에 따라 축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므로 목적의 위계며 의도의 분류였다. 건축가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평면이다. 그에게 평면은 재료분석표처럼 매우 간결한 표현 형식으로 마치 수정체나 기하학의 도식처럼 분명하게 나타나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의도의 추진력이었다. 앞서 그가 평면을 중시했음을 본 것처럼, 평면에서 비롯되어 외관까지 관습적인 좌우대칭으로 기념비성을 추구한 행태에서 벗어나 가장 기본인 평면에서부터 건축가의 의도를

제대로 담자는 것이다. 그가 건축학교가 이성과 의식이라는 두 가지 창의성의 원천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다고 회의(懷疑)한 것도 그릇된 교육이 젊은 예비 건축사들의 사고를 고착시켜 행위의 종극목적 관념인 의도의 발상조차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국제연맹 청사 계획안(1926년)에서 건물 각 기관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의도의 원대함과 고상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감동적인 관계를 표명했을 때, 이 의도가 바로 건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람들은 "건축, 그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지만 우리는 "건축, 그것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물질을 통해 구축되지만 정신에 의해 통제되는 균형 잡힌 건축을 추구한 르코르뷔지에가 건축이 이르러야 할 궁극적 목표로 지향한,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로서 감동을 주는 건축은 이렇게 온전한 의도의 지각이 필요함을 환기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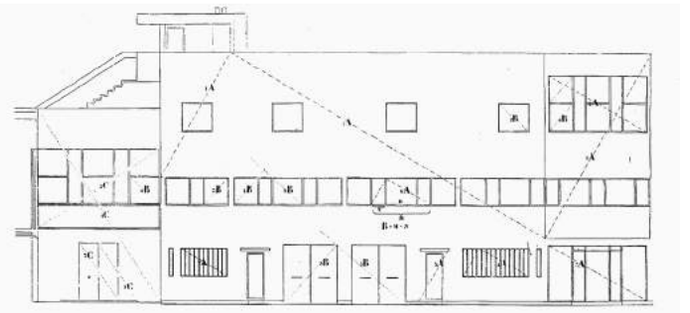
(2) 조화와 비례로서의 건축

"건축은 '조화'의 문제며, 그것은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르코르뷔지에는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음악과 연관 지어 조화를 거론했다. 건축과 음악 모두 시간과 공간의 비례를 정하는 일이며, 여기서 매혹적인 느낌을 고양하는 도구가 바로 조화로운 비례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이상학적인 감각에도 관련될 수 있으며 따라서 물질을 정신세계로 이어주는 비례가 당시 건축에서 더 이상 고려대상도 아닐 만큼 폐기됐다고 우려했다. 여기서 그가 학생들에게 조화와 비례를 거론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전건축부터 내려오는 건축 고유의 덕목인 조화나 비례처럼 전통에서 좋은 점은 당연히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건축이 비례를 잃었다는 것은 조화도 상실했다는 뜻이다. 르코르뷔지에에게 건축은 조화의 심오한 전달이다. 평면이라는 대지 위에 사용된 아름다운 형태들이 다양성, 기하학적 원리의 통일성과 같은 규칙을 따라 건축이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에게 조화로운 비례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좋은 건축에 변함없이 내재돼야 할 덕목이었다.

둘째, 기계시대의 활력 속에서도 고전건축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조화와 비례는 여전히 근대건축의 높은 품위를 유지하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단순화로 추상화된 이미지를 추구한 근대건축은 장식 같은 표피적 치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지녀야 했다. 르코르뷔지에가 경제의 법칙으로 고무되고 수학적 계산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연의 법칙에서 도출한 수학적 계산을 활용하여 건축을 하는 엔지니어의 작품에서 조화를 느낀 것에서, 질서와 마찬가지로 수학적 명쾌함에서 얻어지는 조화가 새로운 건축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될 수 있는 당위성을 그가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르코르뷔지에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건축에서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몸소 방법론을 찾아 나서는 모범을 보였다.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가 발간된 1943년 이전에는 그는 파사드를 구성할 때 독단에 대항하는 보증이자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추구로 이끄는 정신적 질서를 만족시키는 방안으로 제시한 '조정선(tracés régulateurs)'을 활용했다. 그는 이 조정선의 원리를 생드니 문, 피라에우스 병기고,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카피톨 언덕의 주피터 신전, 베르사유의 프티 트리아농의 파사드 등 고전에서 추출했다. 그가 치장된 아름다운 파사드에 몰두하는 당시 교육을 염려하며 평면과 단면을 순수한 기능적 유기체로 창조했을 때 파사드는 그 결과며, 이때 조화를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 파사드는 감동을 일으킬 것이고 비례로 충분하다고 충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를 본받은 조정선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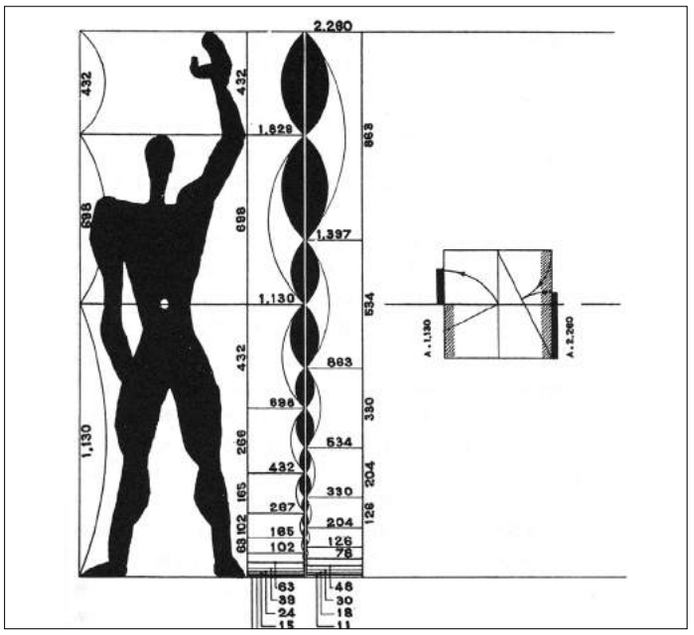
르코르뷔지에의 라로슈-장느레 주택에 적용된 '조정선'

르코르뷔지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943년부터 1955년까지 조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서 '모뒬로르(modulor)'를 연구하여 두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조화시스템으로서의 모뒬로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모뒬로르 연구를 통해 수학적 속성과 함께 인체 치수에 근거해 건축이 인간 척도를 반드시 고려하는, 인간의 움직임과 활동을 담는 용기가 되는데 그가 주력한 것에 주목한다.

(3) 인간 척도를 고려한 건축

르코르뷔지에는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모든 건물에 시대에 적합한 스케일, 즉 영혼의 척도이자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의 척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와 같은 스케일의 구현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말로만 아니라 이 책이

발간된 1943년부터 12년간 계속된 모뒬로르 연구를 야심차게 진행했다. 그는 저서 『프레시지옹』 발간의 계기가 된 남미에서의 10회 강연 중에도 네 번이나 이전 건축과는 달라져야 할 스케일 감각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습할 것을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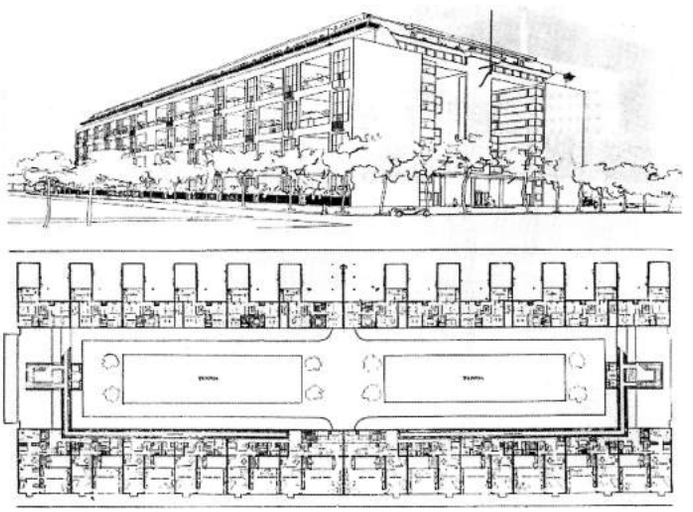


'모뒬로르' 연구, 르코르뷔지에

"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정한 자극에 고무되어 율동적으로 배치하는 것, 통일성 있는 미묘한 관계성을 통해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균형을 잡는 것,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라는 『건축을 향하여』에서의 언급처럼 척도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평소 인식은 각별했다. 르코르뷔지에가 들고 나온 '표준'과 '유형' 개념도 인간의 척도와 기능을 탐구한 결과였다. 이러한 척도에 대한 깊은 관심에 더해 그가 아르헨티나 강연을 위해 대서양을 건너면서 보름을 보낸 대양횡단증기선의 선실 생활경험이 강연 시 인간 척도에 대한 소신을 더 확실하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생들에게 주택을 구상하며 방의 기능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크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보고, 자녀가 네 명인 가정의 집에 필요한 방을 이어지는 순서대로 배열한 후 공간마다 최소한의 면적을 부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확한 측량을 통해 스케일을 몸에 익히고자 자를 들고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의 침대차와 식당차에서 식당, 부엌, 통로 등을 직접 재어보라고 충고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의 작은 집들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 위해 주파사드에 지붕난간의 장식벽과 커다란 방패꼴 가문(家紋)을 씌우는 '속임수'에서 눈을 떠 파사드 이면에 숨어 대대로 내려온 집을 재어 보라고 덧붙였다. 르코르뷔지에는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집을 '민속'으로 표현하며 이런 류의 민속을 대량생산의 관점에서 연구하라고 권유했다. 그의 1920년대 백색 주택 시리즈는 흔히 지역 특성을 무시한 '국제양식(International Style)'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지만, 그는 그리 춥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습기는 많은 편인, 기후조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건축사였다. 실제 그는 지역의 기후와 풍습에 가장 적합하게 발전해온 전통주거의 연구를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르코르뷔지에가 학생들의 교육내용을 생각하며 인간 척도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주제를 대양횡단증기선에서의 경험이 상술된, 아르헨티나에서의 네 번째 강연(『프레시지옹』 4장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하는 주거단위」)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그는 건축만이 기계화의 방식에서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건축교육이 현재가 아닌 과거를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마의 수도원(Chartreuse d'Ema)에서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한 주거단위의 전례를 발견한 그는 자신의 '빌라형 공동주택(Immeuble villa)'에 새로운 기준치수를 적용했음을 이 장에서 설명했는데, 결론부에서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한 주거단위를 탐구하는 일은 기존의 모든 주택과 거주 방법, 모든 습관과 전통을 잊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마치 전통주거의 연구를 주장한 앞의 내용과 상치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가 반대한 것은 역시 전통이 아니라 왜곡된 당시의 건축 상황이었다.


빌라형 공동주택 계획안, 르코르뷔지에, 1922

아르헨티나에서의 다섯 번째 강연을 다룬 『프레시지옹』의 「가구의 모험」 장도 여전히 인간 척도를 중심으로 거론됐다. 더 이상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군림하는 가구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인이나 도구처럼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사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크기의 가구를 적합한 장소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4) 색채와 글쓰기/스케치

르코르뷔지에는 자신이 1910년 이래로 백색 면의 새롭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특징을 믿어왔고 또한 백색의 광휘를 강조하기 위해 주변에 다채로운 색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의한 '자유로운 공간(plan libre)'의 가능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 건축에 다색화법을 다시 끌어들여 공간을 정의하고 공간에 다양성을 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색채가 삶의 움직임과 조응하기에 가능한 일로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삶 자체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반두스뷔르흐(Theo van Doesburg)는 1923년 선언문 「공동건축을 향해서」에서 건축사가 적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색채를 장식이 아닌 유기적인 표현수단으로 인정하며 공간과 시간 속에서의 조화관계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의 하나로 정의했다. 마찬가지로 르코르뷔지에도 색채가 공간과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했다. 데스타일(De Stijl)의 색채기법과 다른 점이라면, 데스타일의 다색채가 건축 형태에 앞서 개념화되어 천장·바닥·벽 같은 건축요소가 색채를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즉 구조의 논리가 시선의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르코르뷔지에의 다색채는 구조의 논리로부터 시선의 형식을 조절하도록 조치됐다는 점이다.[5] 그가 물질의 내재적 성질에 관련된 객관적 측면인 받치기(tenir)와 인간의 감각 질서에 관련된 주관적 측면인 느끼기(émouvoir)를 동시에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색채의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라는 권유에는 당시 사람들이 도릭이나 중세 시대 색채의 강렬함을, 루이 14세와 루이 15세의 모전(毛氈)이 보여주는 명료함이나 광휘를 잊었다는 자각에서 비롯됐다. 너무 순수성만을 추구하면 지나친 두려움을 낳을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소심한 문화만 횡행한다는 것이다. 르코르뷔지에가 설명한 것처럼, 건축에서 색채가 수행하는 세 가지 특별한 기능인 공간을 수정하고 대상물을 분류하며 생리학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우리의 감성에 강하게 반응함을 활용하기 위해 백색의 순수성을 넘어 적극적인 색채 연구의 필요성을 주창한 것이다.

이외에도 르코르뷔지에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연습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강연을 한 아르헨티나 도시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비교분석보고서를 작성해보라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다. 다소 어렵겠지만 이를 통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무엇에 관계된 일인가', '어디에 쓰일 것인가', '왜 이것을 하는가?'를 항상 알아야 함을 이해하게 되는, 판단력을 기르는 좋은 훈련으로 봤기 때문이다. 건축가이기 이전에 문필가로서 먼저 명성을 떨쳤던 르코르뷔지에 자신이 글쓰기가 사고체계를 정리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실감한 장본인으로서 글쓰기의 유익함을 설득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강연에서도 그랬지만, 말하는 것보다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르코르뷔지에는 그리는 것이 거짓말 할 여지를 줄여준다며 어디서나 줄곧 그리면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때 색연필 같은 다색 도구를 사용하여 색채를 통해 묘사하고 분류하고 읽고 명백하게 보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나갔다. 매순간 문제를 확실히 읽어야 하는데, 색채가 도움이 됨을 알았던 것이다. 그는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시적인 사물이 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대상들, 자연의 언어를 말하는 대변자 등 조형적인 사건들을 연필로 스케치해 보라고 권했다. 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물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에게 강인함과 순수함, 통일성과 다양성의 감각을 전해주는 자연과 직접적으로 교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르코르뷔지에가 『프레시지옹』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데생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때 그가 말하는 데생은 양식이나 주범을 그리는, 당시 아카데미즘의 유행을 쫓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이 도리어 근대건축의 매력을 덮어버린다고 우려했다. 건축사에게 붓의 흔적을 사로잡고 연필의 옅은 자국을 담아내는 진정한 스케치는 미화(美化)를 위한 묘사의 수단이거나 이미 생각 속에 구축된 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현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거울 같은 것이다. 순간적으로 지나는 생각을 움켜잡음으로써 발상하고 생각을 영글게 하는, 창작 에너지를 빨아올리는 스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5) 이에 대해서는 정진국, 『르 코르뷔지에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 공간사, 2001 참조.

깨어 있어야 할 교육

지금까지 두 번의 연재를 통해 르코르뷔지에가 당시 건축교육의 주체였던 에콜데보자르가 과거에 집착하는 보수적 교육 체계를 고수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장했던 새로운 건축교육에서의 주안점과 그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그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량적으로 제한된 저서와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을 강연에서 토로된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지만, 건축사로서 철저했던 소신이 그대로 건축교육 정신에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5년제 건축교육의 상당부분을 이미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르코르뷔지에가 주창한 교육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건축과 시간의 문제는 오늘날 활동하는 건축가가 과거와 현재 및 미래에 대해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시대적 본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과 동시에 과거가 주는, 시간을 초월한 가치에 내재된 교훈이 자신에게 스승의 역할을 했다고 여길 만큼 중시하며 계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건축의 기본으로 주장했던 대지, 건축에서 공간성과 동선 및 주거 연구의 중요성 등을 당시 건축교육에서 거의 무시했었다는 점은 근대화의 시대 흐름에 건축이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르코르뷔지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건축의 기본이 중요함을 말과 글로써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성취된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이 주장이 타당함을 증명했다.

건축사로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기술의 문제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주의환기는 오늘날 5년제 건축학교육이 시행되면서 도리어 더 진지해진 구조·환경·시공 관련 교육을 떠오르게 한다. 그는 스스로를 순수예술가와는 다른 '건설자-개혁자(constructeur-innovateur)'로 자부했다. 기술과 재료, 사회라는 객관적 자료의 총합인 건축이 지닌, 시적 감흥의 기반인 객관성을 서정성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했다. 그는 기술에서 여러 번 좌절을 겪었지만 건축가라면 종합하고 창조하는 건설자와 분석하고 수학을 응용하는 엔지니어의 정신을 적극 수용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 연재 글에서 재론하겠지만, 르코르뷔지에는 "건축 정신은 오직 물질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의 결과로 생겨난다."며 건축의 물질적이자 정신적 속성에 주목하고 진정한 건축의 이미지가 특별한 의식의 상태로부터 나오는 정신적인 가치들과, 아이디어를 물질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서 물질을 통해 구축되지만 정신에 의해 통제되는 균형 잡힌 건축을 추구했다. 오늘날은 건축이 변화무쌍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형식'에 어떻게 담느냐를 고민하는 때지만, 건축에서 형식과 내용의 타당함(propriety) 같은 오래된 기본 원칙은 건축의 물질성과 정신성에 균형 감각을 요구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건축사의 의도, 조화와 비례 같은 작품에 내재된 가치, 인간중심사고의 결과인 인간 척도 개념, 백색 건축사로 알려졌던 시기의 다채색에 대한 관심, 글쓰기와 스케치 훈련을 통한 사고체계 구축과 영감의 고취 등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로서 감동의 건축이 성취될 수 있도록 르코르뷔지에가 건축교육에서 원했던 폭은 넓었다.

당시 건축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을 격려하지 않는다는 르코르뷔지에의 질책은 건축교육에서 일정한 틀을 갖춘 현재 우리의 교육체계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한다. 건축교육의 복합성과 시대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멈추는 순간 건축교육은 본질에서 비켜가고 시대와 엇박자를 내며 불굴의 의지로 평생 성장해나가야 할 젊은 건축학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이관석,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 동녘, 2011
2. 정진국, 『르 코르뷔지에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 공간사, 2001
3. CONRADS, Ulrich, 『건축 선언문집』, 이현호 역, 기문당, 1986
4. Le Corbusier, *Polychromie architecturale: Étude faite par un architecte pour les architectes,* FLC B1(18), 1931
5. Le Corbusier, *Quand les cathédrales étaient blanches,* Plon, 1965
6. Le Corbusier,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7.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8.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이관석 공역, 동녘, 2004
9.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0. MONNIER, Gérard, *Le Corbusier, Qui suis-je?,* La Manufacture, 1986
11. SOMMERSON, John, *The Classical Language of Architecture,* Thames & Hudson, 1980
12. TSIOMIS, Yannis, *Sur les ailes métalliques du Parthénon, in PAQUOT, Thierry, Les passions Le Corbusier,* Les Editions de la Villette, 1989
13. TZONIS, Alexander, *Le Corbusier, The Poetics of Machine and Metaphor,* Universe, 2002
14. ŽAKINÉ, Ivan, *The Final Testament of Père Corbu,* Yale University Press, 1997

글. 한영식_ Han, Young-sik
큐브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도시 경관을 해치는 컨테이너의 규제와 활용에 관한 소고(下)

Consideration On Regulations and Use of Container Structures that Make the City Ugly

2. 컨테이너 건축의 국내외 현황

(1) 도시경관을 해치는 국내 컨테이너 시설물

국내의 컨테이너 활용은 대부분 원시적인 상태의 임시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주로 도로변의 임시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임시주거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컨테이너의 무분별한 사용과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도시경관 측면에서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할 숙제다.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관변단체의 컨테이너 사무실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집합주거용과 단독주거 컨테이너 시설

(2) 건축사가 디자인한 컨테이너 _국내 사례

플래툰 쿤스트할레 (PLATOON Kunsthalle)		
개 요	위 치	대한민국, 논현동
	연 대	2009. 4
	주 안 점	복합문화예술 공간
특 징	자유로운 공간의 확장	① 컨테이너를 구조부분만 이용 ② 내부 공간의 다양한 확장 가능
	조립 및 해체의 효율성	① 폐기물의 최소화 ② 소재 교체의 편리성
	간편함 시공	① 경량의 소재 사용으로 시공기간 절약 ② 조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적음
분석결과	독일의 디자인그룹 PLATOON의 계획으로 제작되었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교묘히 결합하였으며, 28개의 컨테이너를 층층이 쌓고 필요한 공간을 구조부부만을 이용하여 비워내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지상 4층의 건물로 4층에는 옥상 테라스가 있고, 특히 4층까지 시원하게 뚫린 메인 홀은 외부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2층의 계단 쪽에는 벽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길거리 문화인 '서브컬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플래툰 쿤스트할레 (PLATOON Kunsthalle)

페이퍼테이너 박물관 (Papertainer Museum)		
개 요	위 치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공원 내
	연 대	2006. 9
	주 안 점	종이튜브와 컨테이너 소재를 활용한 뮤지엄
특 징	재료의 최소화	① 종이와 컨테이너 소재 주사용 : 건축적 최소화
	조립 및 해체의 효율성	① 폐기물의 최소화 ② 소재 교체의 편리성 ③ 이동 설치 가능
	환경 친화 소재 이용	① 종이와 재활용 컨테이너 사용
	자연요소의 실내유입	① 컨테이너가 쌓인 메인홀 양 끝은 자연 경관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설계 ② 프리스탠딩 기둥 틈새로 빛의 통과 및 공기 순환 유도
분석결과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은 일본건축사 시게루 반이 설계한 종이 기둥 353개와 컨테이너 166개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 건물의 시공 및 해체가 효율적이며, 재활용 컨테이너와 종이튜브, 두 가지의 최소한의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적 최소화를 유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적 최소화란 재료를 덜 사용하되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정성 들여 가공하고 조립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태도를 의미한다.	

프라다 트랜스포머 (PRADA Transformer)		
개 요	위 치	대한민국, 경희궁 앞
	연 대	2009. 4
	주 안 점	이벤트 보조시설로 다양한 기능 보유
특 징	공간의 효율성	① 최소한의 단위공간으로 구성 ② 작은 공간을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
	조립 및 해체의 효율성	① 폐기물의 최소화 ② 소재 교체의 편리성 ③ 이동 설치 가능 ④ 이동의 편리성
	간편함 시공	① 경량의 소재 사용으로 시공기간 단축 ② 조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적음
분석결과	OMA의 최신작으로 각종 이벤트(영화, 패션쇼, 전시 등)를 가지는 프라다 트랜스포머의 보조시설이다. 다양한 용도(사무실, 매표소, 대기실, 창고 등)로 사용되며, 이벤트가 끝나면 빠른 시간 안에 철거되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여 또 다른 부수적 기능을 하게 된다. 지면으로부터 약 1m 띄워져 아래 부분으로 각종 설비시스템들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다.	

페이퍼테이너 박물관 (Papertainer Museum)

프라다 트랜스포머 (PRADA Transformer)

(3) 건축사가 디자인한 컨테이너 _해외 사례

보헨 파운데이션 (Bohen Foundation)		
개 요	위 치	미국, 뉴욕 웨스트 13번가
	연 대	1997
	주 안 점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 표현
특 징	재료의 효율적 사용	① 컨테이너 절개 조각을 재가공한 가구 사용 ② 재료사용의 최소화
	공간의 유동성	① 공간 내에 레일을 설치 :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공간 재구성을 가능하게 함. 공간 활용도를 높임.
	재활용 가능한 소재 이용	① 컨테이너와 유리, 목재를 활용한 실내계획 ② 재료의 조립과 분해 편리
분석결과	1980년대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실내공간으로, 이전 공간의 특징과 장점을 해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소재인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공간 구획뿐 아니라 절개 조각을 활용한 가구를 사용하여 재료의 최소한의 사용과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였다.	

M. D. U (Mobile Dwelling Unit)		
개 요	위 치	미국, 뉴욕
	연 대	2003
	주 안 점	이동식 주거
특 징	경제성	① 건축비 절감 효과 (기존의 주택보다 50%가량 저렴)
	조립 및 해체의 효율성	① 폐기물의 최소화 ② 소재 교체의 편리성 ③ 이동 설치 가능 ④ 이동의 편리성
	간편함 시공	① 경량의 소재 사용으로 시공기간 절약 ② 조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적음
분석결과	LOT-EK에서 2003년에 선박 컨테이너를 조립식 가옥으로 개조한 것으로, 조립이 간단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의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여 기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보헨 파운데이션 (Bohen Foundation)

M. D. U (Mobile Dwelling Unit)

유니클로 컨테이너 스토어 (UNIQLO Container Stores)		
개 요	위 치	미국 뉴욕
	연 대	2006
	주 안 점	이동식 소매상점(Unit)
특 징	공간의 효율성	① 최소한의 단위공간으로 공간구성 ② 작은 공간을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
	조립 및 해체의 효율성	① 폐기물의 최소화 ② 소재 교체의 편리성 ③ 이동 설치 가능 ④ 이동의 편리성
	간편함 시공	① 경량의 소재 사용으로 시공기간 단축 ② 조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적음
분석결과	일본의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이동식 소매상점이다. 짧은 시간 안에 점포의 이동이 가능하며, 컨테이너가 비행기, 자동차, 선박,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소한의 생산 모듈(컨테이너) 1개만을 이용하여 내부 공간을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파우드 어린이 센터 (Fawood Children's Centre)		
개 요	위 치	영국, 런던
	연 대	2006
	주 안 점	아동 교육센터
특 징	환경친화적 소재 이용	① 컨테이너와 재활용 자재 사용
	자연요소의 실내유입	① 컨테이너가 쌓인 메인홀 내부에 자연 경관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설계 도입 ② 내부(건물)에서 외부(자연)로 개방된 시야 확보
	공간의 유동성	① 사용자(어린이)의 필요에 따른 공간 재구성을 가능하게 함. 공간의 빠른 변화(교체) 가능
분석결과	외부는 유년기의 아이들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밝은 색과 하나의 매스로 이루어졌으나, 내부로 들어가면 분절된 다수의 컨테이너들의 조합으로 동심을 자극하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사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쉽고 빠르게 공간의 형태나 색을 재구성 할 수 있다.	

유니클로 컨테이너 스토어 (UNIQLO Container Stores)

파우드 어린이 센터 (Fawood Children's Centre)

발킹 강변 마케팅 센터 (Barking Riverside Marketing Suite)		
개 요	위 치	영국, 런던
	연 대	2008
	주 안 점	마케팅 센터
특 징	경제성	① 건축비 절감 효과 ② 평면 및 입면계획의 합리화 ③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에 비해 공기 단축
	공간의 다양화	① 컨테이너의 수직 결합으로 공간 디자인 영역 확대
	간편함 시공	① 경량의 소재 사용으로 시공기간 절약 ② 조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적음
분석결과	일반적인 컨테이너의 수평적 결합과 함께 수직적 결합으로 한 층 더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다. 비교적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73개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단 8일 만에 완공하였으며, 그 후 2008년 3일 만에 5개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컨테이너 시티1 (Container City1)		
개 요	위 치	영국, 런던
	연 대	2001
	주 안 점	컨테이너유닛 조합을 이용한 집합주거, 스튜디오
특 징	경 제 성	① 건축비 절감 효과 ② 평면 및 입면계획의 합리화 ③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에 비해 공기 단축
	환경 친화 소재 이용	① 폐기물의 최소화 ② 소재 교체의 편리성 ③ 재활용 컨테이너 사용
	공간의 다양화	① 컨테이너의 수직적 결합으로 공간 디자인 영역 확대
분석결과	2001년 20개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단 4일 만에 15세대가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었다. 각각의 세대가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장되고 그 속에서 쾌적한 오픈 스페이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은 1년 뒤인 2002년 22개의 스튜디오를 가지는 container city2의 제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발킹 강변 마케팅 센터 (Barking Riverside Marketing Suite)

컨테이너 시티1 (Container City1)

간이 숙박시설 (Salvation Army)		
개 요	위 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연 대	2008. 9
	주 안 점	컨테이너 모듈의 간이 숙박시설
특 징	공간의 Module	① 유닛(컨테이너)의 사용으로 공간의 효율을 높임 ② 규격화된 자재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조립 및 해체의 효율성	① 폐기물의 최소화 ② 소재 교체의 편리성
	간편함 시공	① 경량의 소재 사용으로 시공기간 단축 ② 조립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적음
	경 제 성	① 건축비 절감 효과
분석결과	Tempohousing의 housing 유닛을 이용하여 제작된 숙박시설로,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 또는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견고하게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각각의 실은 큰 창을 통해 작은 공간 속에서도 큰 개방감을 가질 수 있으며, 1층은 내벽을 제거하고 외벽과 기둥만을 설치하여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 기숙사 (student housing Diemen)		
개 요	위 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연 대	2008. 4
	주 안 점	250개의 컨테이너 모듈 기숙사
특 징	공간의 Module	① 유닛(컨테이너)의 사용으로 공간의 효율을 높임 ② 규격화된 자재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자연요소와 적절한 조화	① 컨테이너가 중정의 자연 경관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설계
	간편함 시공	① 경량의 소재 사용으로 시공기간 단축 ② 조립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적음
	경 제 성	① 건축비 절감 효과
분석결과	Tempohousing의 housing 유닛을 이용하여 제작된 5층 규모의 학생기숙사로 내부와 외부에 녹지를 계획하고, 천연가스의 이용과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50개의 유닛들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새로운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다.	

간이 숙박시설 (Salvation Army)

학생 기숙사 (student housing Diemen)

3. 결론

(1) 컨테이너 건축의 활용 가능성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에 따라 도시, 건축, 조경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계획과 친환경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는 재활용, 재사용, 재생가능성을 염두하고 계획 및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다. 컨테이너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재료이자 구조임을 본 연구에서 알게 되었다. 특히 컨테이너의 장점인 친환경성, 이동성, 경제성(저렴), 모듈화, 신속성, 내구성으로 인해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많이 활용될 것이다.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점은 컨테이너 건축이 건축사 혹은 디자이너와 결합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나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도시적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임시적 장소나 숙소 등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규정된 법적 규정을 과감하게 개정하여 법적 테두리 내로 불러와야 할 것이다. 특히 컨테이너 건축을 디자인하는 건축사와 시공자는 국내의 컨테이너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털어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현재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좀 더 저렴하고 다양한 컨테이너 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경관 측면에서 정부 혹은 지자체는 컨테이너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컨테이너 건축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기술심의를 강화하고 특히 주요 도로변에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적 측면에서는 내화성능과 단열 등 철제컨테이너의 건축재료로서의 성능을 더욱 개발해야할 것이며, 미관심의에 더욱 강화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는 컨테이너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최고한도(2층)를 내화 및 내진이 보장될 경우에 한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제한적 규모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건축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거와 기타 시설용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앞으로의 방향

본 소고는 해외의 발전된 사례에 비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국내의 열악한 컨테이너 건축의 현실을 보여주고, 국내에서도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에서처럼 다양한 용도로 건축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컨테이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컨테이너 건축의 개론에 지나지 않아 많은 한계를 지닌다. 특히 컨테이너 건축이 도시적 맥락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법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건축소재로서의 가능성도 추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 J. D. Smith(2006), Shipping Ccontainers As Building Components, University of Brighton
- 擁嘉陽(1993), The Research of Application for Shipping Container in Low-Rise Residential Building
- 김휘연(2007), 컨테이너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간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단행본>
- Paul Sawyers(2008), Intermodal Shipping Container Small Steel Buildings.
- James Grayson Trulove, Ray Cha(2007), PreFab Now.

<학술지>
- 이광옥, 컨테이너하우스의 내외장재 사용 경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 과학연구, pp.1~8, 2008.
- 이정윤, 김홍, 조립식 건축물의 화재특성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23권, 제3호, pp. 30~35, 2008.
- 하성규, 고성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pp. 9~31, 2007.

<웹>
- Wikipedia foundation inc. (2006),
- Shipping Container Architecture.[online],
- <http://en.wikipedia.org/wiki/Shipping Container Architecture>

글. 이승석_ Lee, Seung-Seok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4 미국건축사협회 (AIA) 전국대회 참관기

A participation report at 2014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AIA) National Convention

헬렌 드라일링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회장은 초대의 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

"최근 들어, 지난 십수 년 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건축과 건설 분야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시카고 컨벤션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과연 변화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중심이며 가장 위대한 도시, 세계적 수준의 대도시이며 근대건축이 자라난 시카고에서 이번 컨벤션이 열리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랜 경기침체 이후 아직 그 여파가 사라지지 않은 세상은 이제 막 변화의 몸짓을 시작하려 하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회복이 아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절대로 오지 않을 신기루 일 뿐, 우리는 그 회복을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을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New Normal'이라는 단어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Design with Purpose'의 의미를 뒷받침하며 행사기간 동안 가장 자주 언급되었다. 이번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지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전문적인 성과물이 새로운 수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의 기조 연사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어 참가자의 관심과 흥미를 배가하였다.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시카고 시장인 램 엠마뉴얼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AIA AWARD는 최고의 영예인 Gold medal을 비롯하여 Membership honor, Institute Honor, Collaborative&Professional Achievement, Cosponsored Programs, Knowledge Community Programs 부분으로 나뉘어 20여 개의 수상자와 수상작 등이 결정

<주요공식일정>

기 간 : 2014. 6. 25(수) ~ 2014. 6. 28(토)
장 소: 일리노이, 시카고 McCormic Place
참가자 : 강승우, 이승석 위원(이상 국제위원회 위원), 이각표(건축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임송용(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송영규(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류춘수(이공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전		오후		저녁	
6/25			AIA 컨벤션 등록 (VIP 라운지)		VIP환영파티	
6/26	프리젠테이션(개회)		2014 AIA EXPO		AIA 국제위원회 리셉션	
6/27	프리젠테이션	해외단체장 포럼	해외단체장 오찬	수여식		
6/28	건축탐방		프리젠테이션 (폐회)		리셉션	수여식 만찬

된다. 모든 수상내용은 AIA 홈페이지와 정기 간행물에 개재하며, 프리젠테이션 무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수상을 진행하였다.

Gold medal : Julia Morgan, FAIA
Topaz Medal : Harrison Fraker, Assoc. AIA
Edward C. Kemper Award : Fredric Bell, FAIA
Whitney M. Young Award : Ivenue Love-Stanley, FAIA
Twenty-five Year Award :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METRO
Architecture Firm Award : Eskew+Dumez+Ripple

이번 해의 AIA Gold medal을 수상자는 Julia Morgan로, 작고한 그녀를 대신하여 딸이 무대에 올라와서 수상하였다.

기조연설자

1) Jinnie Gang, FAIA
/ 시카고 소재 건축사사무소 Studio Gang 운영

- 시카고 다운타운에 초고층 주상복합인 Aqua Tower를 디자인하고 여러 건축상을 수상.
- 미시간 호수 경비행기 공항의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 초기부터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도시의 재생과 복원력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함.

2) Theaster Gates / Rebuild Foundation 운영자, 시카고 대학 Arts+Public Life 프로젝트 디렉터

-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공간 설치미술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동함.
- 전통적으로 흑인 빈민층의 집단거주지역인 시카고 남부 다운타운의 재생화작업(Rebuild Project) 사례를 보여주고, 열악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결국엔 도시 전체의 생명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

3) Ed Mazria, FAIA
/ 뉴멕시코 주립대·오레곤 주립대 연구교수

- 건축사이자 저술가, 교육자
-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 건축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향후 20년 안에 주거 및 상업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제로 건물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여줌.

4) Tony Hsieh / Las Vegas Downtown Project 디렉터

-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둔 인터넷쇼핑몰 zappos.com의 CEO로서 지역경제에서 지역건설 중심으로 탈바꿈 하고자 하는 과정을 이야기함. 라스베가스의 스트립 지역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운타운 지역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Delivering Hapines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능 있는 지역주민들과 도시재건 프로젝트를 잇따라 실행하면서 건축과 문화, 그리고 도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면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두의 삶이 윤택해 진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이번 컨벤션의 주제인 Design with purpose를 실례로 증명하고 있다.

메인 프리젠테이션

3일간 매일 진행된 프리젠테이션은 행사의 시작과 끝을 알림과 동시에 중요한 상을 수여하고 수상자가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된다. 협회장인 Helene은 매일 프리젠테이션을 이끌며 사회자의 역할을 했다. 메인 프리젠테이션의 무대는 영상을 비추는 두 개의 화면이 전면에 배치되어 진행에 따른 정보를 문자와 이미지로, 때로는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세 차례의 프리젠테이션 도입부에는 인터뷰 영상을 재생하였는데, 「세 가지 질문; 1.건축이란 무엇입니까 2. 건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까, 3. 건축사에게서 들은 조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건축분야 종사자 혹은 일반인들의 대답을 편집한 것으로, 건축인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VIP라운지에서 헬렌 드라일링 미국건축사협회장과 기념사진

전시

3일 동안 열리는 엑스포는 국내의 건축박람회와 비슷했다. 건축자재,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는 물론 실무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시방서(master spec) 관련 및 설계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부스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행사기간 동안 상주하며 저마다의 홍보에 열을 올렸다. 올해 전시는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모두 미국 경제의 활기가 느껴질 정도로 작년 전시 대비 거의 두 배정도의 면적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건자재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어 작금의 뜨거운 관심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래가치를 읽을 수 있었다.

AIA Expo 전시장 전경

AIA 타운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입장이 다른 여러 건축사들의 고충을 듣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원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두었다. 신진건축사를 위한 부스는 사무실 운영 및 세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타 분야로 전향을 고려하는 건축사를 위한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있었다. 또한 '아키PAC'이라는 정치활동을 하는 로비스트 그룹이 단독의 부스를 마련하고 활동영역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 그룹에는 건축을 전공한 인력이 아닌 정부부처 근무경력을 가진 행정가 인력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건축관련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였다.

건축탐방

해마다 새로운 도시에서 열리는 AIA 건축사대회는 개최도시의 건축탐방을 기획하고 다양한 여정을 개발하여 외국에서 온 VIP를 비롯하여 타 도시에서 온 참가자들이 대회기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개최지인 시카고는 근대건축의 태동을 보여주는 다수의 유명 건축물이 있어 여러 코스의 건축탐방을 운영하였다. 이각표 조직위원장을 비롯, 임송용 회장과 송영규 회장은 시카고리버 건축탐방에 직접 참여하였다.

행사 마지막 날 회장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마치며

1867년 첫 번째 대회를 치른 이후 약 150년이 지난 미국건축사대회는 그 역사만큼이나 내실과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다양한 AIA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건축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자리이며, 건축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컨벤션 기간 내내 벌어지는 다양한 강의 및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계속교육의 크레딧을 쌓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건축인들의 화합의 장으로써 잠재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컨보케이션 파티(Convocation Party)는 올해의 fellowship 명칭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호명되며 서로를 축하해 주는 자리로, 회원들 간의 명예를 서로 북돋아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건축사대회가 조직적인 행사이고 다양한 만남과 이벤트로 건축사 간의 교류를 증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미국건축사대회를 다시 한 번 곱씹게 만드는 것은, 회원들을 리드하고 회원들과 공감하며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의 건축사의 위상과 생각을 공유하게 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변화하는 여러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인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지는 건축사를 사회에 끌려가는 집단이 아닌 선도하는 집단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특히 마지막 키노트 스피커인 Tony Hsieh의 상상적인 도발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문화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배경이 다른 건축사제도를 가진 우리가, 비슷한 행사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배울 점도 물론 많다. 하지만 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문화에 맞게 변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형식과 모양은 다르지만 건축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고 타국과의 교류를 증진하며, 국내외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로 건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기 AIA 회장인 Elizabeth(왼쪽에서 두 번째)와 환담 중

기고.

글. 마재완_ Ma, Jae-wan / KIRA
건축사사무소 가림 대표

2014년 WA-CUP 상해 대회를 다녀와서

An observation of 2014 World Architect-CUP Shanhai

1일차 :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다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 동호회원 46명은 2014년 WA-CUP(World Architect Cup 세계건축사축구대회) 상해 대회를 참가하고자 인천국제공항(AM 10:50)과 부산김해공항(AM 09:50)에서 각각 출발하였다. 건축사 축구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WA-CUP은 한·중·일 건축사들의 축구제전으로, 매해 각 나라와 도시를 순회하며 '친선 도모와 건축문화 교류'를 캐치프레이즈 아래 성황리에 치러지는 대회이기도 하다. WA-CUP을 축하라도 하듯 비행기는 맑은 날씨 속에 상해 푸동 공항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덧 운무에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1시간 30분의 비행 여정 속에 공항에 내려앉았다.

공항에 마중 나온 김해공항 출발팀이 먼저 도착하여 현지 가이드와 합류하였고, 간단한 인사와 안내로 버스에 몸을 싣고 달려 시내 전망코스인 동방 명주탑에 도착하였을 때 인천공항 출발팀과 합류하여 기쁜 만남으로 동행하였다. 명주탑의 크고 작은 11개의 둥근 모양은 진주를 의미하고 유유히 흐르는 황포강은 옥쟁반을 상징하여 크고 작은 진주가 옥쟁반에 떨어지는 형상을 표현했다고 하며 높이가 무려 468m로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 초고속 전망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전망대 263m에서 상해 시내와 황포강의 포근함, 강변 주위를 둘러싸며 응원이라도 하듯 비상하는 고층빌딩군들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겼다. 안전강화유리로 된 바닥의 전망대에서 가슴 졸이며 애써 아름다운 포즈를 취해 한 장 추억 사진을 담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동방 명주탑에서 기념사진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 역사박물관을 둘러보았다. 드넓은 저층부 사이로 그 시대의 문화와 거리, 생활상을 재현해 놓아 무엇보다도 중국의 근대 발전사를 한눈에 보는듯했다. 또한 명나라 때 효심이 지극한 반윤단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조성했다는 예원에 들러 중국정원의 진수를 맛보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문화예술의 귀중함과 자부심의 흔적들을 마주했다.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까지도 보존되어 빛을 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값진 유산이 아니겠는가? 물결처럼 흐르는 정원 길을 따라 걸으니 어느덧 출구가 미로처럼 연결된 예원의 옛 거리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해의 명동거리, 남경로가 황혼 빛에 물들며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다.

예원 전경

잠시 분주함을 가다듬고 우린 다시 버스로 이동해서 상해 야경을 보러 황포강 유람선에 몸을 맡기었다. 웅장하고 남성

적인 낮과는 상반되게 야간의 동방 명주탑은 고운 빛을 발하였고, 덩달아 춤을 추는 상해의 야경까지!! 여성스럽다 못해 젊은 날의 연애시절을 연상케 한다. 가슴 저미게 비추는 불빛의 황홀함, 여기저기 인증 셔터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숙소로 발길을 재촉하여 버스에 오르니 상해 '정지하워드존슨호텔'의 얼굴이 살며시 눈에 들어왔고 동시에 눈이 스르르 감긴다.

황포강에서 바라 본 상해 야경

2일차 : WA-CUP 축구대회 깃발을 올리며

축구경기에 앞서 이번 대회를 주관한 동지대학교 건축설계연구원(Tongji Architecture Design Group)에서 왕 지안(Wang Jian) 부사장의 환영인사와 함께 조(Joe) 건축설계1부 원장으로부터 연구원 리모델링 설계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받은 후 건립된 건물의 여기저기를 직접 동행하면서 설명해주어 더욱 더 인상이 깊었다. 주차장 건물을 설계원으로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였는데, 중정을 통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햇빛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였다. 일사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해 일사차폐장치에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하여 일거양득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각 파트별 설계실에 회의실과 소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 실의 기능과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옥상조경과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최상층으로부터 열저항을 줄이고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켰다. 외관의 다이나믹한 매스와 마감자재는 설계자의 작품 완성에 심혈을 기울인, 한층 돋보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설명과 견학을 마치고 동지대학운동장 두 개면에서 WA-CUP 친선경기가 A, B, C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나라와 문

전체 기념촬영

화는 달라도 건축의 열정이 있었기에, 축구경기는 한층 열기를 더해가고 선수와 응원단 모두가 한마음 하나 되는 국경을 초월한 건축제전을 펼치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건축적 언어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대회가 가장 바쁜 시기에 잡혀 불행히도 일본팀이 합류를 하지 못했고, 대신 중국팀이 상하이에 기반을 둔 네 개의 건축사사무소(TJAD , ECADI, Hyp-Arch, UA)에서 각 한 팀씩 만들어 출전했는데, 대부분 20대와 30대의 젊은 직원들로 팀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한국팀은 노련미와 팀워크로 경기에 임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향상하는 젊은 패기에 우승을 못 한 아쉬움은 푸짐한 당나라 스타일의 환송만찬으로 달래야 했다. 상하이 까지 와서 젊은 친구들과 격의 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꿈만 같았다.

선배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WA-CUP 대회'의 초석이 다져졌고, 여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나눔 등이 오늘의 2014 'WA-CUP 대회'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며 맛있는 점심과 담소로 오전 게임의 피로를 풀었다. 꿀맛과 같은 휴식을 보내니 어느덧 주심의 호루라기 소리가 귓전을 때리며 파이팅을 재촉한다. 비록 건축환경이 다르고 근무환경과 생활이 달라도 이번의 'WA-CUP'은 어느 대회 못지않게 잘 짜인 일정과 건축기행으로 마지막까지 기대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한국팀 기념촬영

3일차 : 2012년 프리츠커상 에 빛나는 '왕슈'의 작품을 만나다.

3박 4일의 여정의 3일째다. 아침부터 부산하고 가슴 뛰는 이유는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012년 프리츠커상' 을 수상한 중국의 신예건축사, 순수 토종국내파, 주로 상하이 닝보, 항저우 등에서 활동했던 왕슈의 작품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정은 짧지만 더욱 기대와 설렘이 부풀어 올랐다. 넓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인 항주만 대교(36km)를 2시간 달려 닝보미술관을 찾았다. 낡은 해운회사 사무실이었던 건물을 현대적 감각을 주는 미술관으로 바꾸기 위해 고심했던 차에 건물이 '왕슈'의 손에 맡겨지면서 예산을 1/3로 줄였고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동안 봐 왔던 그의 건물과는 사뭇 다르게 붉은 목재가 주된 마감이면서 그 느낌이 모던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다.

닝보미술관 전경

또한 닝보역사박물관은 주변의 현대건축물들에 의해 변질되고 급해진 시간의 흐름을 최대한 늦추고 과거와 현대의 조화로움을 잘 드러내어 역사의 숨결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철거된 기와나 벽돌들을 재활용하고, 그 재료들을 현대적인 공간과 언어로 재해석시킨 '왕슈만의 컨셉'을 특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건축물 같아 한층 더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특히 건축사로서 더욱 고민했었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 외부에 면하는 여러 부류의 창들을 통해서는 르 꼬르뷔지에를 만나는 것 같았고, 물을 건축물에 끌어들여 디자인의 오브제로 사용한 점은 안도 타다오를 만난 것 같았으며, 지역성 짙은 재료에서는 가우디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건물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물길과 갈대밭, 건물 외관의 불규칙한 창들의 배열과 외벽의 사선들, 재료의 느낌을 잘 살려낸 마감들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잘 어루만져 순박하고 정직하며 거칠게 나타낸 점들이 인상 깊었다. 3층에 어머니 가슴같이 드넓은 옥상데크와 예쁘게 생긴 처녀의 쭉 뻗은 다리처럼 계단은 시간으로 가는 기찻길 속에 사랑이야기 같았고, 외부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창은 역사의 카메라와 같이 옛것과 현대의 모습을 조화롭게 포용하는 것 같아 더욱 흥미로웠다.

닝보미술관 옆 재현된 옛길

시간과 일정이 촉박하였지만 버스는 절강성에 있는 '중국미술학원'으로 냅다 달렸다. 조금 무리한 일정이었으나 건축사의 숨소리가 있었기에 일행의 마음을 재촉하며 부르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늦어져 일몰 후에 도착했고, 30여개 동으로 구성된 왕슈의 마스터플랜과 건물을 한 동씩 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어 실망이 막 엄습해오려는 순간 어두워진 캠퍼스에서 하나의 보석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어두운 불빛에 드리워진 30여 건물들의 자유롭고 우아한 몸짓, 그중에서도 불빛을 머금은 '와샨 게스트 하우스'는 우리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누워있는 듯한 매스, 대지에 축을 설정하고 여섯 개의 기본공간 사이에 계단과 중정을 두어 공간들을 연속되게 하고 기하학적 형상인 목조트러스가 부양하듯이 덮은 공간 연출은 자연재료를 소재로 하는 건축사의 미학이 더욱 빛난 작품이었다. 설계기간 3년, 시공기간 2년을 통해 고민과 번뇌에 가득 찬 건축사의 열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멈춰진 시간 속에 묻혀 사라져가는, 과거의 화려했던 요소들에 건축사는 생기를 불어넣었고, 잉태라는 커다란 산고를 Re-cycle이라는 명분으로 토해낸 열정의 흔적에 우린 잠시 숨소리를 멈춰본다.

4일차 : 아쉬움을 뒤로하며! 2015 WA-CUP 일본 대회를 향하여

3박 4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니 안도에 한숨이 쉬어지기는커녕 왠지 가슴 벅찬 추억과 기억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함께한 건축사축구동호회원들, 형제들과 나들이 한 것처럼 다정하며 열띤 경기와 건축기행 속에 숨소리를 같이 하며 나누었던 외침과 울림이 건축이란 문화와 언어로 승화됨이 어찌 기쁘지 않았겠는가! 우리들에게도 이런 외침과 울림의 미학이 재생되고 세워질 때 '플리츠커 상'은 우리세대에 가능할 뿐 아니라 차세대 꿈나무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고 또한 그리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 대회를 물심양면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상하이 중국건축학회 관계자와 동지대학교 건축설계연구원 관계자 및 팀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가오는 2015년 WA-CUP 일본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대한건축사축구동호회와 WA-CUP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WA-Cup 주역들

WA-Cup에 대하여...
(World Architect Cup;세계건축사축구대회)

글. 신춘규_ Shin, Chun-gyu / KIRA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WA-Cup은 2002년 서울건축사회의 강남지역건축사회 축구동호회가 해외교류를 위해 일본건축사협회(JIA)를 방문하여 동경에서 교류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전국건축사축구연합회로 교류를 확장하고 매년 방문과 초청으로 교류를 해왔다. 2006년 제주대회 때에 중국건축사들의 합류로 한·중·일 3개국 친선대회로 변화하고 AA-Cup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국은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상하이 중국건축학회(ASSC; Architect Society of Shanghai, China)가 주요 팀으로 합류했다.

이후 2011년 동경 세계건축대회를 기점으로 문호를 더 넓히기로 하고 WA-Cup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초청해서 해오고 있으나 참여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2012년 태국건축사협회(ASA)가 7개국을 초청하여 교류전을 치른 적이 있고, 2013년 한국에서 주최한 진주 대회에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가 참여하기로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최소를 한 적도 있다.

WA-Cup이 건축사들의 교류전임을 감안하여 일본 JIA의 Kazuo Iwamura 교수 겸 건축사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지금까지 축구교류전 이전에 건축세미나를 통해 건축교류를 함께 해오고 있다.

WA-Cup은 국제통이거나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이 취미생활을 통해 다른 나라의 건축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진정한 의미를 둘 수 있다. WA-Cup을 통해서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다른 문화를 접하고 다른 나라의 건축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본다.

각국의 단장 및 연락책은 다음과 같다.

대한건축사협회 축구동호회

단장 : 연합회장 이진희(충북건축사회) toban8688@korea.com

연락 : 신춘규(국제위원회 자문위원) cgsaa@chol.com

일본건축사협회(JIA)

단장 : Kazuo Iwamura(교수, JIA 전부회장) iwamura@iwamura-at.com

Furuya Nobuyaki (교수, JIA 부회장) furya@waseda.jp

연락 : Masako Yasuda(JIA 사무국) myasuda@jia.or.jp

중국건축사협회 상하이 지부(ASSC)

단장 : Wang, Da Sui(ECADI 고문) dsw1973@ecadi.com

연락 : King Long(중국건축학회 상하이 지부) asscsh@163.com

이사회 개최 현황

제10회 이사회

2014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 구미코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허가대상 주택 품질보증 참여여부 검토의 건」과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행사 협찬 수입금 사용계획에 관한 건」이, 부의안건으로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시 공로회원 표창 대상자 결정의 건」과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허가대상 주택 품질보증 참여여부 검토의 건
- 대한주택보증과 업무협약(MOU)을 원안대로 체결하여 진행하기로 함.

●제2호 :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행사 협찬 수입금 사용계획에 관한 건
-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행사 협찬 수입금을 원안대로 사용하기로 함.
- 최종결산 잔여금은 일반회계 잡수입 처리

| 부의안건 |

●제1호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시 공로회원 표창 대상자 결정의 건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시 원안대로 공로회원을 표창하기로 함.

●제2호 :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지원예산 : 60,000,000원)
- 2013년도 지원금과 동일하게 배분하되, 건축사회별 배분방법 및 금액은 시·도 건축사회 회장단에서 최종 협의 후 확정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법제위원회 1팀 회의

제1회 법제위원회 1팀 회의가 지난 10월 28일 협회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소형건축물 면허제도 도입 및 시행 요청 건의 검토의 건
- 실무 종사자의 실명제를 도입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소형건축물 면허제도 신설은 추후 재검토가 필요함.

●제2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요청 검토의 건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준용하며, 연장건의는 하지 않기로 함.
- 기간을 연장하면서 위법을 돕는 것은 맞지 않음.

●제3호 : 도시가스사업법, 하수도법 개정요청 검토의 건
- 관련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정리해야 함.

●제4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 표준계약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대안으로 건축법에서 표준계약서가 폐지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2조를 적용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함.

제2회 법제위원회 3팀 회의

제2회 법제위원회 3팀 회의가 지난 10월 28일 협회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공사 감리업무 항목 정립에 관한 건
- 감리업무 세부항목을 사후설계관리,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감독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사무처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다음 회의(11/6)에서 논의하기로 함.

●제2호 : 건설사 설계겸업 요구에 관한 건
- 건설사의 설계겸업 허용은 전면 반대로 협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8회 50년사 발간소위원회

제8회 50년사 발간소위원회가 지난 10월 14일 협회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50년사 진행사항 점검 및 편집계획에 관한 건
- 10월 마지막 주까지 원고마감, 현재 접수 원고를 토대로 본문작업 시행

제12회 50년사 발간위원회

제12회 50년사 발간위원회가 지난 10월 22일 협회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50년사 진행사항 점검 및 편집계획에 관한 건

- 원고독촉 및 접수원고 본문작업 본격시행(캡션사진, 주석 작업포함), 원고제출 필자 1차 원고료 지급

제4회 정책소위원회

제4회 정책소위원회가 지난 11월 4일 협회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5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의 건

- 협회 5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는 새로운 50년 역사에 담을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키로 함.
- 세부적인 개최방향을 결정하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참여여부를 확정받기로 함.
  - 정책토론회 개최개요

    가. 주　제 : 건축사, 미래는 있는가?

    나.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14시~17시

    다. 장　소 :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라. 주제발표 : 전상인 교수, 이상헌 교수

제4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협회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예비후보 등록신청자 피선거권 자격심사에 관한 건

- 협회 제31대 회장선거 예비후보 등록신청자의 피선거권 자격 및 등록서류를 심사하여 정관 등 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예비후보자로 확정함.

●제2호 : 회장선거 예비후보자 공고에 관한 건

- 회장선거 예비후보자 공고문 게재 내용을 협의하여 공고하기로 결정함.

●제3호 : 선거관련 민원업무 전담위원 선정의 건

- 선거와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 전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또는 소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키로 함.

| 기타사항 |

-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6개월 이상 회비미납 회원의 징계처분과 온라인 투표에 필요한 회원정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 수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재요청함.
-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특정 예비후보자가 회원(선거인)을 대상으로 건축사 실무교육 강의를 하는 것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키로 함.

제5회 주거복지위원회

제5회 주거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협회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주거복지세미나 세부계획(안)에 관한 협의

- 날짜 : 2014년 11월 27일(목) 15:00 ~ 17:30
- 주제 : '집·인·가 (집in家)'

●제2호 : 녹색건축한마당 민원상담 계획에 관한 협의

- 민원상담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내용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녹색건축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후 상담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함.

제8회 사업위원회

제8회 사업위원회가 지난 10월 21일 협회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 KAFF 전시회 최종점검의 건

- 녹색건축한마당 시상식과 전시회 개막식 관련 VIP 초대 및 내빈응접 준비를 꼼꼼히 하며, 개막식 사회자(이남식), 전시회 현황보고 및 전시장 안내(장현수)로 업무 분장함.
- 우수건축자재추천심사위원 중 345명이 사전등록 했으며, 나머지는 현장등록으로 심사.

제5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제5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협회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전반기 강의평가 결과 검토

-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평점 75점에 미달한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교육계획에서 제외하고, 80점 미달과목에 대해서도 교육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중간 평가결과를 시·도건축사회에 통보하기로 함.

●제2호 :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실시계획(안) 검토

-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실시계획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윤리교육의 경우 사회적 물의가 있는 인사 등을 배제하고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및 강사가 2014년 실시계획과 중복된 일부과목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해당 건축사회에 통보하기로 함.
- 아울러, 실무교육의 연간 이수시간(20시간)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문제점 및 예산운영현황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재분야 강좌의 개설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함.

건축계 소식

제10회 건축의 날

'제10회 건축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6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이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로, 건축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건축의 날에는 정명원 명예회장(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영예의 훈장이 수여됐으며, 건축산업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총 46명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시상이 있었다.

대통령표창은 △전영철 건축사(열린모임 참 건축사사무소) △류춘수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이성관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박경립 교수(강원대)가 수상했으며, 국리총리표창은 △조인숙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조형식 건축사(토우종합건축사사무소) △양동협 건축사(한길종합 건축사사무소) △유호천 교수(울산대) 등이 각각 받았다.

한편 행사를 기념해 풍성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먼저 '2014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 참가한 안창모 교수(경기대학교)가 한국관 주제인 '한반도 오감도'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기념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는 국가지정 제72호 진도씻김굿 이수자인 강은영 씨의 북춤 공연이 이어졌다.

건축의 날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인 9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한국건축단체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 2014 건축의날 수상자 명단

<훈장>

△정명원(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회장)

<대통령 표창>

△전영철(열린모임 참 건축사사무소 대표)

△류춘수(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이사)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대표이사)

△박경립(강원대학교 교수)

<국무총리 표창>

△조인숙(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조형식(토우종합 조형식건축사사무소 대표)

△양동협(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호천(울산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표창>

△홍문유(주.강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백상기(건축사사무소 강산 대표) △윤대길(조선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관중(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재승(한양대학교 교수) △조만태(주.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 대표이사) △이현수(서울대학교 교수) △이영수(홍익대학교 교수) △진 정(전북대학교 교수)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손원태(동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임경식(건축사사무소 이룸 대표) △길기현(주.SLK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병섭(엘도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문철(장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오동희(주.간삼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태호(주.소마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찬우(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상무) △홍성천(주.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삼화(주.삼한씨원 대표이사) △이호남(주.담희 이사) △이한은(라이브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우범(공주대학교 교수) △조서영(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고일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조중근(영동대학교 교수) △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강주원(영남대학교 교수) △박찬우(현대엔지니어링 상무) △윤희철(대진대학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윤재선(팀일오삼 건축사사무소(주) 대표) △이옥화(주.에이치오엠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홍근(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태우(주.디자인그룹 아리 대표이사) △백문기(집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고문) △이동언(부산대학교 교수) △오양기(목포대학교 교수) △유재우(부산대학교 교수) △최윤경(중앙대학교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 예비후보자 5명 등록

서울 4명·부산 1명 등록…선관위 16일 예비후보자 공고 내

왼쪽부터 강석후, 김영수, 이창섭, 조충기, 정태복 건축사(등록순)

협회 역사상 첫 직선제로 시행될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0월 14일 마감됐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0월 8일부터 7일간 예비후보자를 받은 결과, 총 5명의 건축사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등록 순으로 살펴보면, ▲강석후 건축사(서울/수림 건축사사무소) ▲김영수 건축사(서울/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창섭 건축사(서울/주.유빅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충기 건축사(서울/건축사사무소 간향) ▲정태복 건축사(부산/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등록했다. 이번 5명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제29대 회장선거 당시 6명이 등록한 이후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 등록 수치를 보였다.

한편, 첫 직선제로 치러질 제31대 회장선거는 내년 1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온라인투표로 실시된다.

대한건축사협회-행복청 MOU 체결

대한건축사협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복도시의 건축문화 창출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복청에서 열린 이날 MOU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과 행복청 이충재 청장을 비롯해 협회 권병조 부회장, 공공건축추진단 김일환 단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단체는 이번 MOU를 통해 행복도시 건축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및 도시 특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으며, 행복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사의 역할과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복청의 각종 설계공모 및 사업제안 시 건축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충재 청장은 "이번 MOU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건축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 김영수 회장은 "행복도시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특허청 MOU 체결

대한건축사협회와 특허청은 10월 15일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건축설계분야 특허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상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축설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건축설계분야 특허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지식재산 및 건축설계 관련 정보 공유 ▲건축설계분야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건축설계분야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협력 등이다.

김영수 회장, '경기건축문화제' 참석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수원 화성에서 열린 '제2회 경기건축문화제'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축사에서 "경기도는 많은 건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문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경기건축문화제가 경기도 건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김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남 지사는 "수원까지 와주신 김영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기도의 도시와 건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회장, '일본건축가협회' 명예회원 추대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전국대회에서 JIA 명예회원으로 추대됐으며, 해외 단체장 포럼에 참가했다. 특히 JIA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 2003년부터 JIA와 최초 교류 협정을 체결한 후 해마다 양측 행사에 회장을 초청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김영수 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면담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10월 14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10월 24일 열린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관련해 경상북도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김 도지사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경상북도는 이번 2014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경북건축문화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행사지원금을 보내는 등 다각적으로 협조했다.

영등포지역건축사회, 영등포구 구민상 '사회질서확립상' 수상

김기훈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왼쪽)

대한건축사협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는 지난 9월 26일 열린 '영등포구민의 날' 행사에서 영등포구 구민상 중 단체부문인 '사회질서확립상'을 수상했다. 영등포지역건축사회를 대표해 김기훈 회장이 수상했으며, 몇몇 건축사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수상은 올해 초 지역 내에 방치된 건축물 외벽에 벽화작업을 하는 등 관내 도심환경에 변화를 주었으며, 성실한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10월말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건축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426	6,426	71	142	8	24	6,505	6,592	1,886	1,886	231	462	58	174	25	100	17	122	2,217	2,744	8,722	9,336
서울	976	976	21	42	0	0	997	1,018	925	925	121	242	38	114	12	48	11	70	1,107	1,399	2,104	2,417
부산	563	563	7	14	2	6	572	583	131	131	26	52	3	9	2	8	1	7	163	207	735	790
대구	558	558	11	22	5	15	574	595	72	72	13	26	4	12	3	12	0	0	92	122	666	717
인천	305	305	3	6	0	0	308	311	63	63	7	14	1	3	0	0	0	0	71	80	379	391
광주	234	234	1	2	0	0	235	236	53	53	6	12	1	3	2	8	1	5	63	81	298	317
대전	270	270	5	10	0	0	275	280	35	35	9	18	3	9	1	4	1	14	49	80	324	360
울산	205	205	4	8	0	0	209	213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33	240
경기	916	916	3	6	0	0	919	922	282	282	13	26	6	18	1	4	1	11	303	341	1,222	1,263
강원	207	207	2	4	0	0	209	211	29	29	2	4	0	0	1	4	0	0	32	37	241	248
충북	242	242	2	4	0	0	244	246	44	44	4	8	2	6	2	8	1	9	53	75	297	321
충남	314	314	1	2	0	0	315	316	68	68	9	18	0	0	1	4	0	0	78	90	393	406
전북	281	281	4	8	0	0	285	289	30	30	6	12	0	0	0	0	0	0	36	42	321	331
전남	221	221	0	0	0	0	221	221	24	24	1	2	0	0	0	0	1	6	26	32	247	253
경북	455	455	4	8	1	3	460	466	44	44	5	10	0	0	0	0	0	0	49	54	509	520
경남	528	528	3	6	0	0	531	534	43	43	4	8	0	0	0	0	0	0	47	51	578	585
제주	151	151	0	0	0	0	151	151	22	22	2	4	0	0	0	0	0	0	24	26	175	177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 건축사회	회 원	
	건축사	비 율
합 계	9,330	100%
서 울	2,398	25.70%
부 산	788	8.44%
대 구	713	7.64%
인 천	382	4.09%
광 주	314	3.36%
대 전	358	3.83%
울 산	240	2.57%
경 기	1,244	13.33%
강 원	246	2.63%
충 북	321	3.44%
충 남	406	4.35%
전 북	328	3.51%
전 남	252	2.70%
경 북	516	5.53%
경 남	585	6.27%
제 주	176	1.88%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10월말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584	3,537
서 울	3,972	2,298
부 산	779	150
대 구	688	96
인 천	386	10
광 주	311	81
대 전	364	61
울 산	238	51
경 기	1,464	176
강 원	262	28
충 북	327	90
충 남	387	84
전 북	339	40
전 남	276	78
경 북	497	38
경 남	608	79
제 주	179	58
기 타	1,507	119
비 고	회원 : 9,177 / 비회원 : 3,407	대학 : 3,259 / 대학원 : 278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수	6,592	2,744	9,336	
비율	70.61%	29.39%	100%	
사무소수	6,505	2,217	8,722	
비율	74.58%	25.42%	100%	